IBK기업은행



왜 IBK기업은행은
금융에 '주치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기업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BK기업은행의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은
기업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준비합니다.

재무상태 진단
신용도 및 심층 재무분석으로
개선방안 제시

맞춤형 솔루션 추천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안내

기업 역량 및 업황 진단
기술력, 인력, 거래처 등과
업황 전망을 내·외부 데이터로 분석

금융거래 현황분석
차입금, 이자율, 담보 등을
분석 후 개선방안 제공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IBK금융주치의 프로그램**

IBK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이란, IBK기업은행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을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5150호(2022.09.30) 유효기간 : 2023.09.29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12 | 2022 December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 거래고객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범어동지점 거래고객
릴리커버 안선희 대표

IBK기업은행

연말정산 좀 더 받을 수 없나?
"노후자금"은 언제 다 모으지?
근데 수수료 꼭 내야 되나?

「이 많은 질문에 단 하나의 답」
IBK기업은행 IRP!

연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무료!
세액공제와 수수료 걱정을 한 방에
IBK기업은행 IRP

[i-ONE 뱅크]
IRP 가입하기

수수료 무료
i-ONE Bank 앱에서 가입 시 퇴직연금 수수료 무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7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로 최대 115만 5천원까지 절세 가능

노후자금 마련
개인 맞춤 포트폴리오 설정으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 마련 가능

디폴트 옵션 도입
DC/IRP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을 시 사전 지정 방법으로 퇴직연금 운용

비대면(i-ONE Bank, 인터넷뱅킹)을 통한 IRP 가입 시 운용 · 자산관리수수료에 한함(단, 펀드 보수 별도 발생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4236호(2022.08.19) [유효기간 : 2023.08.18]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contents 2022년 12월호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인생은 아름다워

12 이달의 편지
'커피와의 만남 18일째'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릴리커버 안선희 대표

80 코너 속 편지
'남편과 결혼한 이유'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온전한 휴식

112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받아들이며 익어갑니다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12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김선홍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인생은 아름다워

여성시대를 통해
다시 만난 권지영 씨와 김미영 씨

글 | **성기애**(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언니야~."

"그래~ 지영아~."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서울역 플랫폼. 10여 년 연락이 끊어졌던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와락 끌어안기부터 했다. 여성시대를 통해 다시 만난 두 사람.

권지영 씨는 <언니를 찾습니다>라는 사연을 여성시대 앞으로 보내왔다. 눈부신 시절을 함께 보냈던 언니, 김미영 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며 방송의 힘을 빌려서라도 꼭 한 번 만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권지영 씨와 김미영 씨의 첫 만남은 시간을 거슬러 1994년으로 가야 한다. 풋풋한 설렘으로 가득한 대학교 1학년 시절 경북 상주에 있는 대학에서 같은 과 동기로 만났다. 미영 씨가 나이가 더 많아 '미영이 언니'로 지영 씨는 작은 체구라 '째깐한 애'로 불렸다.

공부도 하고 술도 마시고 알바도 함께하며,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하



고 어쩌다 눈부셨던 그 시절을 함께 보냈다. 자취방의 크기가 좀 더 컸던 미영 씨 집에 친구들과 모여 밥도 해 먹고 잠도 같이 자며 4년 동안 차곡차곡 정을 쌓았다.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이들은 일터를 찾아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미영 씨는 고향인 포항으로 지영 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사로 취직했다.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고 졸업 후 한두 번 만나기도 했다. 각자 결혼하고 다시 조금씩 위치 이동을 한 후 전화로 드문드문 안부를 묻곤 했다.

그 사이 미영 씨는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고, 그걸 알게 된 지영 씨는 보험 가입 의사를 전화로 전했다. 당시 실손보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4인 가족 실손보험으로 한 달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다. 그렇게 몇 번 연락하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삶에 여백이 없다 보니 안부를 묻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좀 여유가 생기면 연락해야지~' 미루곤 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후딱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 씨는 건강검진에서 빈혈이 있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배도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이상했다. 기운도 빠지고 배는 점점 부풀어 올랐다. 급하게 큰 병원을 찾아갔더니 '난소암'이라고 했다. 그것도 4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덤덤했다. 마치 남의 일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상황은 급하게 돌아갔다. 다른 곳으로도 전이가 된 상태였다. 수술을 받았다.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은 나날들이었다. 조심조심 치료를 받으며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다시 또 전이.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첫 번째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시간이었다. 항암에 이어 표적 치료를 받고, 몇천만 원 대의 먹는 항암제도 복용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했지만 다행인 것은 병원비와 수술비가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었다는 거였다. 아픈 몸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신경 썼으면 어쩔 뻔했나, 새삼 미영 언니가 고마웠다. '언니~ 언니 덕분에 나 돈 하나도 안 쓰고 치료받고 있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말했다.

고마운 것으로 치자면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부터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고, 자취방에 가면 따뜻한 밥 해주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폭신폭신한 말투로 다정한 조언을 해주던 언니의 모든 것이 그리웠다.



몸을 좀 추스르고 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찾아 나섰다. 처음엔 보험사에 연락하면 찾을 수 있을 거라 쉽게 생각하여 전화했더니 언니는 이미 보험사를 떠난 뒤였다. 도중에 보험설계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언니가 승진하여 그런가 보다 했었던 게 불현듯 생각이 났다. 그래도 요즘같이 SNS가 발달 된 세상에 언니 하나 못 찾겠나 싶어 인터넷 세상을 뒤졌지만 '김미영' 너무 많은 이름이 검색되었고, 그중 내가 찾는 그 김미영은 없었다. 지인들을 수소문했지만 다들 011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는데 배우 염정아 씨가 암에 걸려 옛 친구를 찾는데, 남편으로 나오는 배우 류승룡 씨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 옛 친구가 미국에서 오는 장면을 보며 '앗! 이거다' 싶었다. 영화관에서 나오자마자 평소 즐겨 듣는 여성시대에 편지를 썼다. 간절한 마음이 그 어딘가에 닿길 바라면서.

그리고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 영화 홍보 차 여성시대에 출연한 염정아 씨가 권지영 씨가 보낸 사연을 읽어 내려갔고, 그 사연을 들은 미영 씨의 지인이 사연 속에 나오는 이가 미영 씨인 것 같다 알렸다. 다시 듣기를 통해 지영 씨의 사연을 접한 미영 씨는 여성시대에 '내가 그 사람인 것 같다' 사연을 보냈고, 두 사람은 방송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됐다. 영화 같은 일, 꿈같은 일이 라디오에서 쉽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며칠 후 미영 씨가 포항에서 지영 씨를 만나러 서울로 왔다.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다.

"나 이제 언니 만났으니 포항 갈 수 있겠다. 우리 남편이 포항에 놀러 가자고 할 때마다 내가 언니 찾으면 그때 포항 가자고 한 번도 안 갔다."

"그래 포항에도 오고 우리 자주 만나자. 미안하다. 언니인 내가 먼저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나는 지영이 네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나랑 같이 있을 것 같다."

연년생 3남매를 키우며 일도 하고 저녁 6시 30분이면 퇴근해 들어오는 남편과 저녁밥을 먹어야 하는 김미영 씨는 동생을 먼저 찾지 않았음에 내내 미안해했다.

투병 중인 지영 씨가 넘어야 할 산은 첩첩하다. 안 아프고 재발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소망이다.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한다. 두려움과 걱정에 쌓인 날들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응원>

[5113] 사랑하는 딸, 취직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아. 알바까지 하면서 열심인 거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네. 조금 더 힘내자! 합격 때까지 파이팅!



[김지연] 남편! 주말부부로 떨어져 지내는데 본인보단 내가 잘 지내는지, 혼자 있는데 외롭진 않은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는 남편이 자꾸 말라가서 걱정이야. 나는 잘 지내니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챙겨준 반찬 잘 먹고. 나보단 당신 자신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어. 벌써 22년째 되는 우리 부부. 서재진 님 항상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조영신] 사랑하는 며느리 상이야! 우리가 가족이 된 지 5년이 되었구나.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우리 집에 신랑 하나 보고 시집와서 정들기가 힘들었지? 그러면서도 경조사 빠짐없이 정성 다해 챙겨주고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단다. 난 아가에게 해준 게 없어 미안하구나. 아가야! 사랑한다, 고맙다.

[이철구] 여보 이지현 씨, 그저께 우리 부부 20주년 결혼기념일이었지? 아귀찜밖에 못 사줘서 미안해. 다음엔 꼭 한우를 사줄게. 아들이 두 달 전에 입대해서 당신이 쓸쓸해 하고 있어서 나도 안쓰러워. 여보! 이지현 씨! 나의 반쪽이 되어주어 고맙고 아들과 함께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많이 많이 사랑해.

[이수미] 밤새 끙끙거리고 앓다가 아침에 일어나 또 출근길에 나서는 자기 모습 보며 그냥 울컥 눈물이 났어. 애써 눈물을 삼키고 말했지. "자기 잘 다녀와. 저녁에 자기 좋아하는 된장국 끓여 줄게 사랑해~♡" 여보 힘내요. 가장의 무게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자기야. 아프면 쉬어가도 돼. 건강이 우선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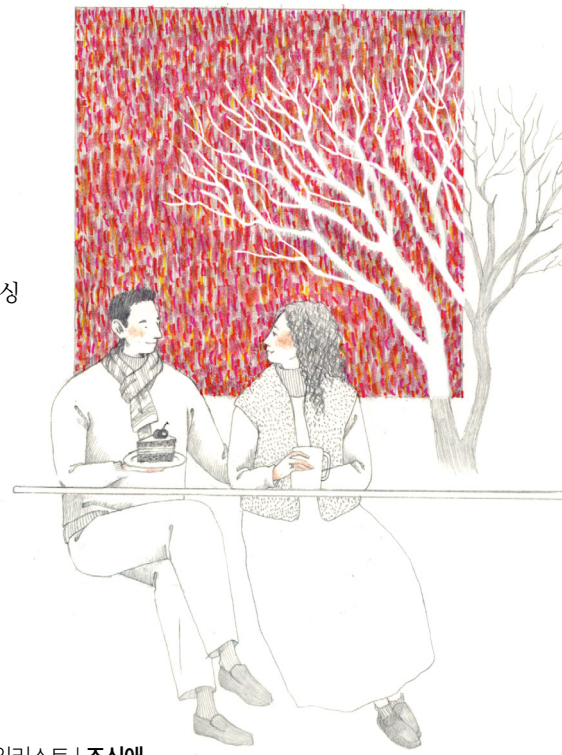


[박진희] 쌍둥이 아빠 박성훈 씨! 나까지 장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쌍둥이 육아에 직장 생활까지 열심히 하는 자기를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맨날 피곤하다고 짜증 부렸는데 이젠 내가 자기의 짜증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할게. 쌍둥이 잘 키우며 잘살자. 고맙고 사랑해.

화요일 '사랑탐구생활' 시간에 도착한 문자입니다.

이달의 편지

12 커피와의 만남 18일째
15 몸이 말해요
17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21 찰칵찰칵 장수사진
24 831호 암 병동
27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30 오롯이 동태탕
33 취업박람회의 두 얼굴
36 엄마와의 약속
40 철없는 남편
44 내 마음의 고향
47 병원에서 당한 보이스피싱
51 함께하는 행복
55 다시 태어난 우리 셋
59 5분의 축사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커피와의 만남 18일째

안보은 | 전남 광양시 마동

나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나도 우아한 커피 향 친구가 되었다. 어릴 때 깡촌에 살아서 커피를 접해보지 않아 커피를 못 마신다고 친구들은 나를 장난스럽게 놀렸다. 커피만 마시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잠이 오지 않았다. 몇 번 도전해 보았지만 실패했다. 15년 전에도 도전했었다. 첫날 한 모금, 다음날 두 모금. 괜찮았다. 셋째 날 세 모금을 마셨다. 신호가 왔다. 가슴이 벙벙하니 두근거렸다. 또 포기를 해야만 했다. 그 후로 난 도전을 끝내야만 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이 뭐냐고 묻는다면 난 커피 향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의 표본이 테이크아웃해서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한 모금씩 음미하는 모습이다. 커피숍에서 "아아(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주세요" 툭 던지는 그 모습도 부러웠다.

내 승용차에도 커피 향 향수, 내 방에도 커피 향 향수를 두고 있다.

그렇게 커피 향을 좋아했던 나는 몇 번 커피 마시기 도전에 실패하고 커피를 못 마시는 체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올해 초 신랑이 건강 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커피믹스 말고 원두커피를 마시라면서 커피머신을 사주었다. 그래서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텀블러에 커피를 한 잔씩 내려 달라고 했다. 신랑의 커피를 내려주는 그 시간, 나는 색다른 경험으로 행복했다. 아침 커피 향이 온 거실을 감쌌고 내 코로, 내 식도로, 내 온몸으로 커피 향이 들어왔다. 커피머신에서 커피가 졸졸졸 잔을 채우는 그 짧은 시간, 난 긴 호흡으로 커피 향을 받았다.

커피에 대해 짝사랑만 해야 했던 긴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22년 9월 24일 날씨도 맑았던 그날, 난 거사를 치렀다. 아침을 든든히 먹은 후 신랑은 커피를 내렸다. "아~ 나도 커피 마시고 싶다~"라고 했더니 "오늘 토요일이니 잠 안 오면 내가 TV 보면서 밤을 같이 새워줄 테니 커피 마셔봐." 신랑이 말한다. 오랜만에 신랑에 대한 마음이 설레며 심쿵 했다. "진짜 마셔볼까"라고 말하면서도 망설임이 많았다.

그러나 용기를 냈다. 나도 커피를 한 잔 내려 식탁에 앉았다. 한 모금 마시니 입, 식도, 위까지 따스한 커피 향과 맛이 내려간다. 에라 모르겠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셨다. 한 모금 한 모금 뜨거웠다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맛과 향이 조금씩 내 입에 각기 다른 맛으로 전해진다. 생애 처음으로 커피 맛을 온몸으로 느꼈다. 내 몸의 신호를 기다렸지만 콩닥이던 가슴도 조용했다.

그리고 백운산 둘레길을 돌면서 자연의 향도 함께했다. 점심 저녁 식사를 든든히 먹었다. 왜냐하면 나의 면역력으로 카페인을 이겨 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 하루는 내게 심오한 의식이었다.

드디어 기대되는 커피와의 첫날밤. 그날 밤 난 긴장했다. 최대한 침



착하고 편안하려 심호흡을 거듭했다. 시간이 흘러 TV를 보다가 난 신랑보다 먼저 잠들었다. 밤을 새워 주겠다던 심쿵함을 준 신랑은 일찍 자는 나의 모습에 황당했다고 했다.

생물학적으로 내 체질이 변했는지 젊었을 때보다 살이 쪄서인지 수수께끼다. 난 그날 이후 매일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행복 그리고 머리의 상쾌한 맑음을 함께하고 있다.

라디오를 틀고 집 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여성시대를 듣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다. 때론 눈물, 때론 감동, 때론 삶의 희망을 주는 그 시간 말이다. 그리고 난 오늘 여성시대를 들으면서 글을 적는다. 내 곁에는 커피가 있다. 견과류와 함께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커피와의 만남 18일째를 만끽하고 있다. 소소한 일상에서 소중한 큰 행복을 함께하고 있다. 시골 깡촌 여인이 커피를 즐길 줄 아는 도시녀가 된 2022년 가을을 기억하면서 소박한 행복을 전해 본다.

Letter 02

몸이 말해요

송영관 | 충남 보령시 천북면 구둥굴길

나는 칼잡이. 회를 전문적으로 뜰 줄 아는 주방장급이었습니다. 대학은 컴퓨터학과를 나왔는데 컴퓨터는 잘 모르고, 학원 강사였는데 자격증이 없고, 임용고시 공부도 했는데 떨어지고 그러다 잠시 사촌형 횟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회도 뜨고, 수족관 관리, 손님 관리, 식자재 및 재고 관리, 중요한 매운탕 소스 관리까지 온갖 것을 다 할 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회가 아니 칼 잡는 것이 싫어져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런지 어언 10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 도와줘야 돼. 사람을 구했는디 전 직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나갔디야. 걔 올 때까지 도와줘. 농사만 지으면 돈은 안 나오잖아. 그니까 잠깐 바쁠 때만 도와줘."

"야! 나 칼 놓은 지 10년이여. 그게 되겠냐?"

"형! 허다 보면 다 될겨. 형, 진짜 나 도와주라."

그렇게 시작된 알바. 칼을 잡으니 생각 외로 된다. 바구니에 고기를 담아서 도마에서 피 빼고, 해체하고, 껍데기까지 해서 넘기고, 낙지 잡고, 멍게 잡고, 가리비, 개불, 전복… 다 한다. 하다 보니 다 된다.

"야, 된다. 몸이 반응하는구만!"

"형, 10년 동안 하던 가락이 있지. 몸이 다 기억혀."

예전에 거래했던 유통회사 직원이 밥 먹고 나가다가 날 보더니 인사한다.

"형님! 다시 온겨?"

"아니 도와달라고 해서 알바하는 겨."

"나도 예전에 형들 애기할 때 들을 걸 그랬슈. 기술이 없으니 몇 년 뒤에 일 그만둘지도 몰라서 답답혀."

"지금부터라도 해라.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 가능햐. 2년간만 열심히 배우면 된다. 대신 여기서 하면 쌈 난다. 거래처 사장님 눈치 보이니까."

아내와 사장은 같은 얘기를 한다.

"다시 칼 잡으니까 그렇게 좋아? 되게 좋아 보인다."

난 되받았다.

"아닌디!"

어찌 보면 나는 이 상황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이 알바는 이번 달까지라고 내가 못을 박았다. 나는 농사꾼인데 시간을 너무 뺏긴다. 그 와중에 온다던 녀석이 수술할 정도로 손목이 좋지 않단다. 착잡해진다. 내가 그리 후배 키우라고 했건만! 이제 키운단다. 후배가 오면 2주 동안 잘 가르쳐야겠다.

Letter 03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애청자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3세의 여성이에요. 여성시대 사연을 듣고 늘 같이 울고 웃고 공감만 하다가 쑥스럽지만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어요.

저희는 11월 12일에 결혼 6주년이 되는 부부입니다. 결혼 초에 아이는 금방 생길 테니 우리의 추억을 많이 만들자며 캠핑, 여행, 낚시 등 즐거운 신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이제 슬슬 아기를 가져볼까 하고 노력한 지 1년, 아무런 소식이 없음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하여 난임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검사 결과 둘 다 문제는 없는 원인불명의 난임 판정을 받았죠. 그렇게 저의 긴 난임 병원 시술은 시작이 되었어요. 나팔관 조영술 검사, 배란유도제 복용, 인공수정 3회. 모두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전해볼 수 있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

게 되었어요. 난자 채취라는 아픈 고통을 이겨내고 첫 배아 이식을 하게 되었고 운 좋게 첫 번째 시술 만에 임신 테스트기에서 난생처음 두 줄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었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임신 6주 차 주수에 맞게 아기집에 생겨야 하는 난황이 생기지 않아 계류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임신에 첫 유산, 정말 많이도 울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이겨냈어요.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는 시간조차 아까웠기에 다시 한번 배아 이식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번째 시술에서도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볼 수 있었고 아기집에 예쁜 난황까지 볼 수 있었죠. '이젠 진짜 된 거겠지? 이번엔 문제없겠지?' 생각도 잠시, 두 번째도 아니었나 봅니다. 점만큼 작게 생긴 아기 심장이 뛰지 않는다더군요.

사람은 여러 번 같은 일을 겪으면 무뎌진다는데 왜 저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역시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젠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잃는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에요.

남편의 위로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몸도 마음도 추스르고 저는 다시 한번 또 도전합니다. 두 번째 난자 채취, 세 번째 배아 이식.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확률은 낮지만 쌍둥이 임신은 더욱 감사할 것 같아 2개의 배아를 이식하게 되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에서 다시 한번 두 줄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처럼 기뻐하지만은 못했어요. 기쁨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컸다고 할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처음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고 젤리곰 모양의 초음파 사진도 받게



되었어요.

특히나 뒤늦게 하나 더 나타난 아기집으로 쌍둥이 임신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어 기쁨도 불안도 두 배가 되더라고요. 5주 6주 7주 8주 매주 병원에 방문해 주수에 맞게 조금씩 자라는 아가들을 보며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9주 병원 방문 날, 뒤에 생긴 아기집의 아기가 심장이 멈춰있더군요. 8주에 멈춘 듯하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 이란성 쌍둥이라 선둥이는 문제없이 잘 자랄 거라는 말씀과 함께 후둥이는 자연스레 흡수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후둥이 '하늘이'는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별이 되었어요. '파란'과 '하늘'. 처음 심장 소리를 들려준 제 아기들의 태명이에요. 제가 파란 하늘을 참 좋아한다고 남편이 지어준 태명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15주가 된 파란이는 혼자서 씩씩하게 무럭무럭 주수에 맞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2차 기형아 검사도 앞두고 있고 출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기에 마음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지만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우리 파란이가 너무너무 고맙고 기특할 따름입니다.

계속 겪는 실패에 저는 정말 엄마가 될 수 없을 거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배에 호르몬 주사를 놓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호르몬 약을 먹고 들쑥날쑥한 호르몬에 많이 예민해졌고 짜증도 많이 늘었어요.

제 슬픔 안아주기 위해 본인 슬픔은 삭히며 늘 든든히 옆에 있어준 우리 남편. 이번 결혼기념일에 뭘 선물해야 좋을까 생각하다 항상 여성시대를 들으며 일하는 남편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 쓴 글이 많이 길어진 것 같네요.

"파란이 아빠~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큼 우리 파란이는 건강히 탈 없이 태어날 테니 마음 편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자. 늘 고맙고 사랑해요."

그리고 전국에 계신 많은 난임 부부님들. 지금은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시간이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꼭 아기천사는 찾아와줄 거예요.

3번의 인공수정 실패, 2번의 난자 채취, 2번의 동결 이식, 2번의 계류유산. 많은 좌절을 맛봤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찾아와준 아기천사를 잘 품고 있답니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조금 천천히 오려나 보다 하고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아요. 시간이 지나니 아픔도 조금은 흐려지더라고요. 많은 분께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Letter 04

찰칵찰칵 장수 사진

이은경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허리가 구부정하고 머리가 흰 할머니께서 가게 문 앞에서 망설이신다. "들어오세요~" 하고 나는 문을 열어드렸다.

할머니는 말씀하신다.

"내가 죽으면 쓸라고 사진 찍어얀디, 머리도 심란하고 옷도 이래서…. 될란가 몰라."

"걱정하지 마세요. 곱게 단장해 드리고 옷도 한복으로 입혀 드릴게요."

내 말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당신이 건강하실 때 미리 사진을 준비하러 오셨단다. 순간 오래전 돌아가신 맏손녀인 나를 많이 아껴주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다. 내가 사진관을 하다 보니 우리 할머니 사진도 정성을 다해 준비해드렸다. 어르신들 사진을 찍다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득문득 생각나곤 한다.

촬영 준비를 마치고 할머니를 의자에 모셨다. 장수 사진을 촬영할 때는 어르신들 얼굴에서 기쁨과 슬픔이 겹친 표정을 볼 수 있다. 그날도 그랬다. 표정이 굳어 있는 할머니께 "미소 지어 보세요. 할머니~ 좋은 일 생각하시고 예쁜 손자 손녀 생각해보세요!"하고 말씀드리자 주름진 입가에서 조금씩 미소가 새어 나왔다. 그 순간에 맞춰 찰칵찰칵 할머니 미소를 카메라에 담았다. 할머니가 웃으시자 눈가와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주름이 고와 보인다.

촬영이 끝나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시더니 "이것도 받으요? 내가 돈이 없어…"하시며 머쓱해하셨다.

"그럼요. 다 됩니다. 다섯 밤 자고 사진 찾으러 오세요."

"내가 늙어 못생겼어도 좋게 나오게 해주쇼. 나 죽으면 자식들 보라고 하게."

말씀하시는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곱게 작업해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영정 사진 아니고 장수 사진이라고 해요. 건강하실 때 만들어 놓으면 오래오래 건강하시답니다."

"그런다요? 고맙소."

할머니는 문화누리카드로 계산한다고 미안해하셨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국가 정책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형편 어려운 분들에겐 보탬이 되라고 만든 것이 문화누리카드이고 이 카드는 어르신께는 효자인 셈이다.

다섯 밤이 지나고 할머니가 사진을 찾으러 오셨다. 액자를 보고는 "오메 내가 이리도 곱소?" 하며 촬영 날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신다. 그러고 검은 봉지 하나를 건네주셨는데 그 안에는 사과 3알, 떡 한 팩, 고추장 한 그릇이 들어있었다.



"이거 내가 담은 고추장인디 잡숴봐."

너무도 감사하고 마음 찡한 선물이었다. 요즘 경제가 너무도 힘들지만 이렇게 힘 나게 하는 일도 종종 있다. 아직은 정이 남아 있는 세상, 그래서 힘을 내 살아내고 있다. 우리 사진관을 다녀가신 모든 고객 분께도 감사드린다.

Letter 05

831호 암 병동

백선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가 있는 곳은 831호 3인실 암 병동이에요. 그 안에서 꽤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커튼을 치고 제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레 들려오는 목소리.

"기연이 밥은 먹었어? 왜? 아직 안 먹고 뭐 했어? 아빠 바꿔봐.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애 밥도 안 주고 뭐 했어?"

오늘도 가슴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다고 휠체어 타고 이동해서 심장초음파도 보고 오고, 진통제가 안 듣는다고 간호사도 호출하던 사람인데 자기의 아픔보다 아이의 밥을 걱정하는 엄마가 있어서 마을버스에서 듣는 통화 내용이랑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옆 침상 분은 쓰레기를 누가 재활용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내어놓았다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 같은 통화를 하는데 아마 아파트에서 무언가 맡고 계신 듯해요.

어떤 환자는 젊은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다니면 "아니 젊은 사람이 벌써 암이 온 거야?" 걱정스러운 말도 던지세요.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병원 복도를 나가면 수액통을 매단 봉을 손으로 밀고 조심스레 걷는 환자분들. 저도 월요일에 수술해서 화요일부터 조금씩 걸을 수 있었지요.

병원 생활은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통합센터라 환자만 입원하고, 텔레비전도 안 켜고, 코로나까지 조심해야 해서 병실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쓰고 커튼을 치고 움막처럼 지내고 있어요. 모든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 병원에서 주는 환자식 먹고, 책 좀 보고, 동영상 보고, 컬러링북에 색칠도 하고, 4B 연필로 그림도 그리는데 시간이 안 가요.

저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지난 6월 23일에. 그전에도 유방암 병력이 있던 지라 선생님께서 유전자 검사를 추천하여 이번 수술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가지고 있다는 'BRCA1'이라는 유전자가 나와서 유방암 수술이랑 난소 나팔관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2013년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유방이랑 난소를 제거하고 유방 복원 수술을 받았다는 해외 기사를 보고는 "뭐 그렇게까지~"했던 저였는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보니 유전자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저의 유전자 검사 결과 때문에 엄마, 외삼촌 그리고 그 밑에 자식들, 또 제 아이들 모두 검사가 필요해졌어요. 제가 겪어보니 저처럼 유전자가 있는 부모 형제는 20세 이상이면 한 가지 유전자 검사비 26만 원과 선생님 진찰료가 들어가고 20세 이하면 부모 동의를 얻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3주 정도 걸리고요. 제가 같은 암을 15년



사이에 두 번 진단 받다 보니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요.

다시 환자가 되어서 이렇게 병실에 있다 보니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다 복도에서 "김치는 쉬지 않게 냉장실에 넣어줘. 밥은 꼭 먹고 가" 이런 통화 소리가 들리면 '엄마는 잔짜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엄마잖아 힘내자, 잘해보자' 다짐합니다.

Letter 06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이보현 | 부산광역시 수영구

12월까지 건강검진을 해야 해서 예약하고 검사를 받았다. 재작년에 할 때는 기본검진만 하면 됐는데 이번엔 '위내시경'이 필수로 들어가서 꼭 해야만 했다.

위가 불편한 적은 거의 없어서 불안감은 없었다. 그러나 종종 TV에서 내시경을 마치고 비몽사몽간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연예인들을 보았던 터라 나도 저렇게 내시경 하는 중에 헛소리가 나올까 그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수면 마취 없이 그냥 내시경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면 마취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마취를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3~4분 정도만 참으면 된다고 하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여러 검사를 마치고 내과로 갔다. 이전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건조한 태도의 간호사분들을 많이 겪어 왔기에 별 기대감 없이 문을 열었

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내시경 간호사분들은 아주 친절히 대해주셨다. 덕분에 은근히 긴장한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했다.

대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나의 이름이 불렸고 침대에 조심스레 누웠다. 내가 한껏 긴장한 게 티가 났는지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러시죠?"라고 가볍게 말을 던졌다.

간호사분들께서 긴장해서 그렇다고 대신 얘기해주셨고, 선생님은 "긴장 풀리면 다시 올게요"라며 나가셨다.

3초 뒤 간호사님의 "준비됐어요~"라는 말과 함께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셨다. 내시경이 시작되고 마취용 가글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굵은 내시경 케이블이 내 목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우에엑! 하고 구역질이 났다. 당연히 목구멍도 놀래서 콱 조여지니 무리가 갔다.

간호사님은 긴장을 풀라며 나에게 결박을 가장한 백허그를 했고 다른 간호사 선생님은 내 손까지 잡아주셨다.

순간 '이 온기는 뭐지? 살면서 낯선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게 보자 보자 몇 번이나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극한의 고통에 있을 때 그 손에서부터 오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손에서부터 팔로 가슴으로 전해졌다. 좀 웃기기도 하지만 신기했다. 간호사 선생님은 구역질할 때만 날 잡아줬다.

머리로는 안다. 그 간호사님은 일을 한 거다. 볼펜을 잡고 기록을 남기듯 약 봉투를 만지듯 그저 일로써 내 손을 잡은 거겠지. 그런데 그게 참 놀랍게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내가 더 안정적으로 임해야겠다는 의지를 줬다.

누가 내 손을 잡았는지 난 모른다. 내시경을 다 끝내고 케이블을 빼고 침을 닦고 일어서니 다들 어디론가 가버린 뒤였고 내 등을 안아준 간호사님 한 분만 유의 사항을 알려주셨다.

머리카락에까지 침이 묻어서 닦고 나왔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내가 눈도 못 뜰 정도의 고통에서 오롯이 혼자 겪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난 생각했다. '아, 힘들 때 손만 잡아줘도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상대방이 마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손을 잡아주는 건 그 자체로 힘이 된다.

그동안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과하게 도와주면 안 된다. 자꾸만 도와주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서 생각이 많았는데 글쎄 내가 받아보니 그냥 도와줘야겠다.

힘들어서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든 생각할 거 없다. 그 사람은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수혈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싸늘한 마음에 성냥불 하나가 켜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잘 알고 내가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가졌는지 살피다 시간 다 보내지 말고 누군가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다면 그냥 손을 잡아줘야겠다. 그냥 툭 도와줘야겠다. 그 후의 일은 내 손을 떠난 그 사람의 영역이다.

난 첫 위내시경을 했을 뿐인데 위 검사뿐만 아니라 따뜻한 손으로 전달되는 온기도 수혈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Letter 07

오롯이 동태탕

김효순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저는 48세 주부이고 24살, 22살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우리 부부의 25주년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징그럽게도 오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아온 날보다 둘로 살아온 세월이 훨씬 많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우여곡절과 희로애락, 또 로또처럼 좀처럼 맞지 않은 부부로 25년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결혼 서약에 나오듯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어가는 걸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새치가 있었고 지금은 염색하지 않으면 반백발이지요. 짧은 스포츠머리의 남편은 조금만 머리카락이 자라도 흰 머리카락이 쉽게 눈에 띄어 지저분해 보이곤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직접 남편의 머리카락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용을 배운 건 아니고요. 바리캉을 사서 잉~ 하고 밀면 됩니다.

처음에는 뒷머리와 옆머리 자르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영구처럼 땜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4주에 한 번씩 깎으니까 솜씨가 좀 늘더라고요. 머리를 말끔하게 깎고 염색도 예쁘게 해주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결코 제가 처음부터 머리를 깎아주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남편은 미용실을 혼자 다닌 적이 몇 번 안 됩니다. 혼자 갈 때마다 머리 모양이 이상하게 잘려서 오곤 했습니다. 남편은 미용사에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 못합니다. 그러곤 집에 와서 투덜투덜 성질을 내지요. "당신이 같이 안 가서 그렇잖아~" 제 탓을 합니다. 남편은 마트도 같이 가야 하고 식당에도 제가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고 주문 해야 합니다. 참으로 혼자 살기 힘든 남자입니다. 고구마를 꾸역꾸역 삼킨 것처럼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맞춰가면서 25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남편도 저에 대한 불만 사항을 말해보라면 밤을 꼴딱 새울 겁니다.

다른 부부들처럼 싸울 때면 "이혼해"하고는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밥 먹자"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매번 위태로운 상황을 잘 넘겨왔습니다. 새삼 신기하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옛날을 회상하게 되네요.

이번 결혼기념일이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개별화물을 하는데 그날 오전까지 일하고 둘이 밖에서 만났죠. 큰아들은 청주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은 군대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결혼 25주년을 기다리며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할 거다, 명품백을 받을 거다' 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켰지요. 정작 그날이 되니 이뤄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애들 입에 맞는 고기를 먹으러 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둘

다 좋아하는 동태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집이 특히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게 하는 곳이거든요. 동태탕이 나오자 나는 동태 살을 발라 남편 앞 접시에 놓아주고,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고니를 떠서 제 앞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해도 무얼 좋아하고 무얼 싫어하는지 이제는 한 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더라고요. 조촐한 동태탕을 먹으면서 서로 눈빛을 보면서 맛에 감탄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남편은 제가 남긴 밥을 닥닥 긁어서 깔끔하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25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살아온 남편이 대견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근사한 식당에 값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그날만큼은 오롯이 둘이 좋아하는 동태탕을 맛있게 먹으며 살아온 세월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25년을 더 살아 50주년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남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요새 김장철이라 배추 나르러 꼭두새벽에 집에서 나서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언제쯤이면 좀 덜 힘들게 일할 수 있을까? 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도 매번 일터로 가는 남편의 발걸음은 가볍다 못해 씩씩해 보입니다. 언제나 몸 건강하고 무사고 안전운전을 기도합니다.

"자기야, 지금까지 내 성격 맞춰주며 살아줘서 고맙고 앞으로 남은 인생 둘이 힘든 일 생기면 같이 헤쳐 나가고 좋은 일 생기면 같이 즐거워하면서 둘이 따뜻하게 등 대고 살아가자. 사랑합니다, 이원철 씨."

Letter 08

취업박람회의 두 얼굴

김나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정년 때까지 다니겠노라고 입사했던 병원을 3년 다니다가 갑작스레 병동이 없어지며 실업자가 되었다. 집에서 쉴 수는 없기에 파트타임으로 하루 여섯 시간 알바를 했다. 그러다 다시 오픈하는 작은 병원에 취직이 되었는데 두 사람 몫의 일을 시키는데 버티다 버티다 사직서를 내고 실업자가 되었다.

자발적 퇴사인지라 실업급여 대상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보지만 오십 초반의 직원을 채용하려는 곳이 많지는 않았다.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중 이력서 낸 곳만 해도 50여 곳은 되는 것 같다. 서류전형에 합격해서 면접 본 것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그나마도 낙방이었다.

여기저기 구직 중이라고 이력서를 공개해놓으니 취업박람회 알림 문자가 자주 온다. 어떤 곳에서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한다. 취업박람회가 뭔지는 몰랐지만 현장에서 면접 보고 채용한다고 하니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지난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기관의 행사 도중 2차례에 걸쳐 면접에 참여했다. 참여한 업체도 많았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 또한 많았다. 많은 인파 중에 내가 이력서를 낸 곳이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었다. 면접을 하다 보니 현장 채용은 아니었다. 다들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회의해보고 두어 달 후에 연락을 준다고 한다. 심지어 한 곳은 다섯 달 후에 그러니까 내년 3월에나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구직자로 생활하다 보니 면접하고 한 달 이내에 또는 2주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포기한다. 그런데 2개월 후, 5개월 후 연락해준다는 것은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현장 면접 채용이라는 말이 무색한 단어 조합이었다. 취업박람회라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한 업체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또 다른 곳에서 취업박람회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면접이라도 한 번 볼까 하고 참여했다. 일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업체 2곳에 면접을 봤다. 그런데 진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박람회라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면접하는 것인지 의문이 앞섰다. 뭔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꼭 퇴짜를 놓기 위한 질문들만을 하는 것 같고 이력서에 쓰여 있는 이력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또 묻고 대답하면 그제야 "아 여기 있네요…" 그러는 거다.

면접을 마치고 취업박람회장을 나오면서 씁쓸했다. 나이는 있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나이라는 방패



가 나를 가로막는다. 3개월을 구직자로 생활하다 보니 '과연 내가 취직이나 할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늘도 나는 구인 사이트에 나와 맞는 일자리가 있나 찾아보고 있다. 남들은 일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운전이 서툰 난 운전에서까지 밀리고 있으니 걱정이다. 그런데도 오늘 문자메시지에 들어온 또 다른 취업박람회 일정을 확인하며 구직활동 중이다. 이곳저곳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다 보면 취직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 기대해본다.

Letter 09

엄마와의 약속

이희선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매일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나의 사연을 한번 올리고 싶은 생각에 몇 번이나 글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글을 써본다. 내 나이 오십이 넘어 살아온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 글을 쓰려고 보니 긴 세월이었던 것 같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 건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른다. 엄마는 거기에 대해 함구하고 살다 돌아가셨기에.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세 살 때 시골에 계신 이모님 댁으로 보내져 어린 시절은 이모를 엄마로 여기며 둘이서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행복하게 살았다. 엄마는 1~2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무렵에 엄마는 지금의 새아버지와 재혼하겠다고 친척들께 인사를 드리러 내려왔다. 새아버지는 결혼을 안 한 노총각이어서 자식은 없었다. 그 이후 6학년 2학기에 나는 엄마가

계신 경기도로 전학을 왔으며 초등학교 졸업을 했다. 그때 난 사투리를 사용하고 얼굴은 까맣고 시골스러움에 언제나 친구들의 놀림감이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며 중학교에 진학했다.

외향적인 엄마와 내성적인 새아버지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인지 두 분은 자주 다투셨고 다툼이 있는 날은 그 불똥이 나에게 튀었다. 그러면 난 밖으로 쫓겨나서 부모님이 주무시면 몰래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새아버지는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했고 며칠씩 집을 나가 돈이 떨어지면 집으로 들어오다 보니 우리 집은 늘 여유가 없었다. 중학교 때 등록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교무실로 불려가는 일이 많았으며 가끔은 이모가 시골에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등록금은 내주셨다. 친구들은 나의 가정사를 모르니 외동딸인데 왜 등록금을 못 내느냐고 비아냥거렸다.

난 이 생활이 너무 힘들었지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하기에 야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니 부모님의 자존심 때문인지 반대하셔서 상업고에 진학하여 열심히 취업을 위해 주산, 부기, 타자를 배워야만 했다. 학원비가 없어 학원 원장님께서 사정을 봐주셔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다.

졸업 후 난 중소기업 사무원으로 일했지만 지긋지긋한 가정환경은 변함이 없어서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이란 돌파구를 찾았다. 하지만 내 가정 또한 넉넉한 삶은 아니었다. 나는 21살에 결혼해서 큰아들을 낳고 바로 다음 해에 둘째 아들을 낳은 후, 아이들을 다른 집에 위탁을 맡기고 1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보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체육관 운전을 도우면서 우리 부부는 열심히 살았다.

8년의 노력 끝에 우리 집을 마련했고 늦둥이 딸도 낳아서 행복할



거라 믿었지만 직원으로 있던 사범이 운행 중 인사 사고를 크게 내어 우리는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 와중에 엄마는 간경화 판정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 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셨고 5년을 잘 넘겼지만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받고 결국은 쾌차를 못 하고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나는 엄마와 약속을 한 가지 했다. "아버지는 지금처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노라"고. 두 분이 계시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니 그 허전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우기 위해 아버지께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하니 불편하다고 하시어 집 근처에 방을 마련하여 가까이 모셨다.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는 엄마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소뇌출혈이 발생하여 재활병원에서 6개월 치료하고 집으로 다시 모셔왔다. 몸이 좋지 않으신 아버지는 명절이 되면 엄마 생각에 술을 많이 드셨다. 그러다 넘어져서 척추를 다쳐서 수술하고, 이제는 좀 괜찮으려나 하면 또 다쳐서 수술하고 이 반복적인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나보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썽 많은 아버지 험담을 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제가 전생에 아버지께 많은 죄를 지어서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녀 세 명을 키우며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부모님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아버지는 고마움보다는 어린아이같이 당신만을 위해 달라고 조금만 서운해도 삐지고 큰소리를 친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 엄마와의 약속을 그만두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기에 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버지 연세가 85세이다 보니 약간의 치매 증상도 있다. 새벽에 전화하셔서 무턱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난 항상 마음을 졸이며 살아간다. 지금은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시는데 그것도 당신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안 간다는 억지 부리시고 언제나 잔뜩 화 나 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원장님과 난 아버지를 달래면서 산다.

오늘도 아버지를 위해 국을 끓여서 챙기고 갑자기 추운 날씨에 점퍼를 하나 챙겨서 아버지 집으로 향한다. 1주일에 2~3번 국을 끓여 가져다드리면 아침은 챙겨서 드신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난 마음을 다잡아본다.

Letter 10

철없는 남편

김미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철없는 제 남편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제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55세가 되던 해 명예스러운 퇴직을 했답니다. 말이 좋아 명예퇴직이지 저는 명이 짧아지는 퇴직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종일 집돌이 남편을 보는 자체가 제게는 명이 짧아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에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제주도에서 1년간 집을 짓고 작은 민박집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오랜 교직 생활의 경험치를 톡톡히 살려 펜션지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학 입시 계획하듯 관광 일정을 짜주고 수학여행 인솔하듯 손님들 해설도 해주고 말이죠. 물론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옆에 있는 제가 3도 화상을 입을 때도 있지만요.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니퍼라는 미국 사람이 손님으로 예약했는데 휴대폰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통신사의 휴대폰을 구입하고 다시 개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모든 연락을 이메일로 해왔습니다. 제니퍼가 제주에 도착했고 시내버스를 타면 펜션 근처 버스정류장까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서귀포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얘기하는 제니퍼가 귀엽다며 밥도 사주고 숲길과 오름을 함께 걸으며 짧은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가며 해설도 해주고 마트 쇼핑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날 운행 거리가 100km가 넘었습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다음 날도 비자림, 만장굴 등을 무료로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서툰 영어와 유창한 한국말로, 제니퍼는 서툰 한국말과 유창한 영어를 섞어 대화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휴대폰을 분실했나요?"

"서귀포에서 깡패 같은 남자들이 내 배낭에서 훔쳐 갔어요."

"대낮에 거리에서요?"

"네."

"휴대폰을 어디에 넣어 두었나요?"

"이 배낭입니다. 뒤로 메고 다녔는데 그 후로는 이렇게 앞으로 메고 다닙니다."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배낭 지퍼가 열려 있었나요?"

"아니에요. 지퍼가 닫혀 있었어요."

"깡패 같은 사람이 대낮에 한국의 거리에서 제니퍼 배낭의 지퍼를 열고 휴대폰을 가져간 후 지퍼를 다시 닫아주었다?"

"네, 틀림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아마 어디엔가 놓고 왔을 거예요. 휴대폰을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했나요?"

"시내버스에서 검색했어요."

"그럼 버스에 놓고 내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버스에서 어디 갈까 검색하고 가방에 틀림없이 넣었어요."

"경찰서에는 가보았어요?"

"네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되었어요."

"경찰서에 언제 갔나요?"

"분실한 지 2~3일 지난 후 갔어요."

"아마 경찰서에서 제니퍼 번호로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다면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화를 걸어도 소용이 없었겠군요. 분실한 그날 갔었다면 지난 한 달 동안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제니퍼를 데리고 파출소로 가서 휴대폰 분실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남편은 제주도에 있는 경찰서 3곳의 유실물 센터에 전화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한 버스 회사에서는 휴대폰은 한 달 정도 보관하다가 분실한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경찰서에 일괄로 보내져서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 휴대폰은 버스 회사에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남편은 확신했습니다.

지도를 펴 놓고 남편의 취조가 다시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서툰 한국말과 서툰 영어로 나누는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한국말로 하면 남편이 못 알아듣고 남편이 영어로 물으면 제니퍼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니퍼는 버스 번호도 색깔도 정류장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제 사건 해결하듯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끝에 몇 가지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1. 그 버스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2. 버스가 자주 멈추었다.
3. 천제연폭포 정류장을 지났다.

학생들이 많았다면 관광지 순환버스가 아니고, 버스가 자주 멈추었다면 급행이 아닌 일반 시내버스라는 얘기. 시내버스 앱을 열고 천제연폭포를 경유하는 일반 시내버스 노선을 확인하고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회사 전화번호까지 확보했습니다. 남편의 짧은 영어와 제니퍼의 짧은 한국말로 진행된 특수 수사대의 취조가 끝난 시간은 밤 9시. 버스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을 기약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옆자리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다음날 제니퍼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 남편이 환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빨리 가잡니다.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시내버스 회사에 가서 본인의 휴대폰을 받는 순간 제니퍼는 울먹입니다.

"미라클! 이건 기적입니다!"

흐뭇하게 웃는 남편을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징글징글하다 싶기도 하고, 동시에 울다가 웃다가 하는 느낌 아시나요?

남편은 교사를 할 때도 내 자식보다 학생들을 더 챙겼습니다. 지금 펜션을 하면서도 항상 손님이 우선입니다. 남편이 키우는 닭이 낳은 알은 손님에게 먼저 드리고 남는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놈의 오지랖은 또 어찌나 넓은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제니퍼 휴대폰 분실 사건' 해결한 것 좀 보세요.

내 남편 고백석 씨! 앞으로도 마술사 마술 부리듯이 오지랖 많이 부리면서 살려면 건강해야 하니 우리 같이 좀 운동도 하고 술은 좀 줄이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Letter 11

내 마음의 고향

김옥신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고속버스에 올랐다. 마음의 고향이었던 외할머니를 이젠 영영 못 보는구나. 허탈하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 8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업도 듣고 있었는데. 부질없다. 6명의 자식과 6명의 손주를 정말 큰 사랑으로 키워내셨는데 아무도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요양병원에서 혼자 가셨다니.

버스 의자를 가장 편한 각도로 젖히고 옆자리와의 커튼까지 치고 나니 1인용 동굴로 기어들어 온 느낌이다. 눈을 감으니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추억들과 요동치는 감정으로 잠을 자긴 틀렸다.

할머니와 나의 사랑은 유난스러웠다. 엄마가 직장생활을 하셔서 할머니께서 나를 10년간 키워주셨다. 내가 기억하는 한 10년간 엉덩이 한번 때린 적이 없었고 소리를 지르거나 무서운 눈을 보인 적도 없으

셨다. 내가 가끔 골을 낼 때면 끌어안아 주셨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으며 온갖 세상의 예쁜 말들을 끌어다가 "넌 그런 아이"라며 내 기분을 풀어주시곤 했다.

유치원 시절까지 난 친구가 없었다. 엄마는 내가 낯가리고 내성적이라며 걱정하셨지만 사실은 할머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서 그랬다. 할머니는 내겐 엄마였고 스승이었고 가장 좋은 친구였다.

사정이 생겨 내가 10살이던 해에 할머니께서 다시 고향으로 가셔야만했다. 워낙 우리 두 사람이 유별난 단짝이었기에 이별이 너무 힘들 걸 알아 어른들은 내가 학교에 간 사이에 할머니가 떠나시도록 했고 이 사건은 내겐 너무 큰 상처고 원망으로 남아있다.

수업을 마치고 여느 날처럼 "할머니~" 외치며 집에 왔는데 안 계셨다. 시장 가셨나 보다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셨다. 가만 보니 장롱에 할머니 옷이 없고 화장대에 할머니 로션도 없고 신발장에 할머니 신발도 없었다. 대신 내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있었다. 세상이 끝난 기분이었다. 할머니 체취가 남은 베개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모른다. 그 시간 할머니께서는 고향으로 내려가며 고속버스에서 6시간 동안 내내 우시니 옆에 분이 "할머니, 왜 그리 우세요?" 했단다.

할머니한테서 종종 편지가 왔다. "옥신아~ 할머니가 새처럼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네게 훨훨 날아갈 텐데…." 이 말씀이 거의 매번 있었다. 편지는 눈물 자국에 얼룩져 있을 때가 많았다.

나의 10대 시절 일기장을 펴보면 사춘기 소녀의 흔한 이야기보다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다. 방학 때마다 뵙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다. 어른이 되면 할머니랑 살아야지 마음먹었던 시간이었다. 그 후로도 참 오랫동안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찾았다. 엄

마한테 야단맞았을 때,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부모님이 내 결혼을 반대하셔서 집을 나왔을 때, 공중전화기를 붙잡고 혹은 고속버스를 타고 진주로 내려가 할머니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곤 했다.

할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의 지혜로운 말들을 끌어다가 내 마음을 도닥여주셨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 표 집밥을 한 그릇 먹고 나면 서울로 돌아와 또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었다.

글을 쓰다 보니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라 눈물이 계속 난다. 진주 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울면서 가게 생겼다. 오래전 그날의 할머니처럼.

나이를 먹으며 할머니께 더 감사해진다. 사랑과 칭찬, 인정 속에서 자란 덕에 나는 자존감이 높고 긍정 에너지가 강한 어른으로 성장한 것 같다. 그런 저력은 인생에서 만났던 큰 위기 때마다 나를 살려냈다. 37살에 4기 암 판정받고 무지막지한 치료를 견디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후유증과 싸우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왕창 무너지지 않은 것도 할머니 덕이 컸다.

어느덧 익숙한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100번도 더 넘게 오갔던 이곳, 이곳에 내리면 늘 설렜는데 오늘은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이런 날이 와버렸다.

결국 "내가 어른 되면 할머니 분수대가 있는 집 사줄게요!" 어릴 때 날렸던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대신 바람을 빌어본다.

"할머니, 우리에게 또 다음번 인생이라는 게 허락된다면 그때는 내 딸로 와주세요. 나도 받은 것 좀 갚을 수 있게. 할머니께 받은 사랑 주변에 나누며 살아갈게요. 감사했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했고 또 사랑하며 앞으로도 사랑할게요."

Letter 12

병원에서 당한 보이스피싱

이승일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몇 시에 퇴원하셔? 모시러 가려고."

"오! 휴대폰 고쳤니?"

"내 휴대폰? 고장 난 적 없는데."

"아이쿠,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 우짜노~."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던 옆 침상의 환자분들이 놀라서 일어나 앉았다. 내 휴대폰이 무섭다. 다 듣고 있을 것 같다. 옆 침상 아주머니의 휴대폰을 빌려 은행고객센터와 경찰서에 전화를 한다. 사고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다. 2배속의 속도로 설명하니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메모를 좀 해야 일을 처리 할 수 있을 듯하네요. 좀 천천히 불러주실래요?"

약봉지 뒷면에 메모했다.

1, 거래 은행에 가서 계좌 인출정지와 피해사실 거래내역서 떼고

2.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분실 신고하고

3. 경찰서에 가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

4. 휴대폰 기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서 휴대폰을 초기화한다.

다 받아적고는 주변을 살폈다.

"죄송합니다. 편찮으신데 놀라게 해드려서요. 인제 그만 주무시지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다. 되짚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아무 의심 없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나의 모든 신상을 제공했다. 밤을 꼴딱 새웠더니 입안이 난리가 났다.

딸은 일찍 병원으로 왔다. 등을 쓰다듬으며 "엄마 괜찮아? 행여 자책 같은 거 하지 마.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야" 그렇게 위로한다.

이틀을 어떻게 보내지. 개천절 연휴라서 빨리 수습할 수도 없다. 10월 4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다. 통장을 바꾸려 하니 무슨 00은행에 내 계좌를 최근에 만든 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 딸은 전화를 안 받는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00은행 계좌를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경찰서에 가 있자니 친구가 경찰서로 데리러 왔다. 항암 치료하고 힘든데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같이 가자고 한다. 2시간의 대기 시간 끝에 휴대폰 초기화를 했다. 118로 전화해서 혹시 전화를 개통한 게 있나 확인하라고 한다. 나보다 열 살 아래인 친구는 컴퓨터 만지는데 능숙하고 일 처리 능력이 탁월하다.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일 처리를 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다. 나는 비교적 포기가 빠른 편이다. 손실 금액이 내 처지보다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어쩌겠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마음을 다잡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미뤄 뒀던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다.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이불 속통을 꿰매면서 "차암 좋다 이 시간이…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했다. 평안했던 시간은 그 순간뿐이었다.

"깨톡 깨톡."

"으잉? 이건 또 뭐야?"

휴대폰 요금이 92만 원 나왔는데 통장에서 출금이 안 되었다고 한다. 나는 평소 휴대폰 요금이 이만 원이 안 나온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모양이다. 갑자기 뒷골이 당긴다.

친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가지고 왔다. 친구가 알아본 바로는 통신사 3곳을 직접 방문해서 개통한 전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단다. 처음 방문한 곳에서 알뜰폰이 5개나 개통된 사실을 알았다. 알뜰폰이라는 게 점포가 없이 온라인으로 개통하는 곳이라 통화가 너무 어려웠고 쉽게 개통할 수 있는지 모두 다른 곳에서 개통한 것이었다. 여의도 일대를 돌며 종일 정리하러 다녔다. 저녁 7시 반이 넘어 집에 돌아왔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다음날 항암 치료 전 검사를 받고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봤다. 그다음 날, 항암 치료하는 날 병원에 가서 수속을 하고는 약 조제 하는 한 시간 반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 옆 창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분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온 것 같았다. 은행원들은 무슨 피해인가.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영양가도 없는 골치 아픈 상담을 해야 하니.

친구는 내가 항암 치료하는 동안 병원 로비에서 알뜰폰 개설 지점에 계속 통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든 일임을 잘 알고 있다. 친구는 자기 일도 무척 바쁜 시기이다. 게다가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항상 대기 중이다. 며칠을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해결해주었다.

오죽하면 경찰서 수사관이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감탄을 한다. 나머지 일은 친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한다.

나는 오늘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친구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일 처리 리스트를 보내왔다.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다. 친구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남편은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고? 너희 엄마처럼 똑똑한 사람도 당하나?" 하는 물음에 딸은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말했다고 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편리하게 사용할 때는 몰랐다. 이번 일을 겪으며 해결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도 했지만, 그건 친구 덕분에 비교적 잘 마무리된 경우이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 노인들은 2차, 3차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더 심한 피해를 입을까 염려가 된다.

새로 내야 하는 92만 원 휴대폰 요금과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인 알뜰폰 5대의 사용요금을 내고 나서야 이번 사고가 끝날 것 같다.

Letter 13

함께하는 행복

김현숙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3년 전, 제 사연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가 인터넷으로 특산물 매장에 난 구인 광고를 보고 제게 소개해줬고 그 매장으로 양희경 씨가 감태 캐러멜을 사러 오셔서 양희은 씨에게 줄 거라며 사 가셨다는 사연입니다.

제가 거기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최근에 그 매장이 폐업하게 됐습니다. 운영이 힘들어서요. 지역 특산품인 만큼 매번 좋은 물건들만 갖다 놨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매출이 자꾸 떨어져 매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직장이 있다는 것에도 감사했지만 매장에 방문하시는 손님들과 얘기하는 시간이 참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다 보니 고객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예를 들면 "비싸게 보리새싹 사서 먹지도 못하고 색깔이 변했는데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여태 그냥 집에 뒀어요."

"그래요? 그럼 보리새싹 분말에 요구르트 섞어서 팩하세요. 피부가 깔끔해져요."

"어머! 그런 방법이 있었네. 이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해."

또 매장을 나가시는 어르신들을 배웅하면서 "물건 안 사셔도 되니까 언제든 매장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차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인사드리면 "세상에 고마워라. 다음에는 내가 친구들한테 좋은데 가자고 하고 여기로 데리고 올게요" 이야기하실 때 마음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매장에 어떻게 그런 손님들만 계시겠어요.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도 만만치 않게 만났습니다. 한 번은 젓갈이 너무 짜서 못 먹겠다며 반품하러 오셨는데 이미 3분의 2는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짠 걸 이렇게나 많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화부터 내면서 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고객님은 반품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겠죠.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고객님 상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하실 때 특히 식품일 경우 드셨을 때는 상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구매 의사 변경이 생겼을 때는 개봉하지 않고 가져오셔야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해요. 근데 오늘은 젓갈이 너무 짜서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반품 처리해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자 손님은 그제야 화를 좀 진정하더니 그래도 나가면서 뒤를



돌아 저를 한 번 더 봐주시더군요. 그렇게 고객님들과 미운 정 고운 정 많이도 들었는데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니까 많이 서운했습니다.

단골 고객님 중에 한 분은 개인 카톡으로 저에게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고객님들께 드려야 할 멘트인데 말이죠.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고 소개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손님들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기도 하면서 신나게 일했습니다. 일하면 할수록 매장 판매일에 매력을 느끼고 또 제가 하는 일에 감사해할 때쯤 영업 종료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이

아쉽고 속도 상하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친정아버지랑 점심을 먹는데 아빠가 갑자기 봉투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3년간 고생했다. 식구들 챙겨 가며 부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를 보면서 아빠가 많이 미안했어. 돈 못 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사.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건네주신 돈이 백만 원.

"아빠~ 힘들게 일하셔서 번 돈을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저 돈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알아보면 일자리 있겠죠. 괜찮습니다" 하며 돈을 되돌려드렸더니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 다 너 덕분이야. 매일 도시락에 간식, 샐러드까지 네가 그렇게 챙겨주지 않았으면 아빠가 여태 어떻게 일을 다녔겠어. 지금 여든넷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너무 행복한데 네가 너무 힘들까봐 아빠는 늘 걱정했어. 그래서 아빠는 네가 일을 못 하게 됐다 했을 때 사실은 다행이다 생각했지. 이제 쉬면서 건강 좀 챙기자."

아버지를 모시고 산 지 벌써 20년. 자식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식구들한테 고마워하고 표현해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도 많이 배웁니다. 마음은 꼭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버지~ 행복하다는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동안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 저도 제 삶에 여유를 좀 챙겨볼게요. 아버지~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Letter 14

다시 태어난 우리 셋

류종숙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964년 4월, 꽃피는 봄날 안동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일주일 사이에 세 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 가구가 나란히 있었는데 솟을대문에 똑같은 금줄을 달아 놓았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며 크게 웃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 무렵엔 걸인들이 많았는데 안주인이 유순하고 인심이 좋은 이 세 집에서 동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하필이면 세 집이 한꺼번에 출산하여 금줄을 쳐놓아서 걸인들이 삼칠일이 지날 때까지 끼니를 걸러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셋은 홍역을 비롯하여 배탈, 감기, 몸살까지도 같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눈만 뜨면 동구 밖으로 쫓아다니며 뛰놀고 소꿉놀이하며 뉘엿뉘엿 해가 져야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춘기 시절엔 같이 공부한다는 핑계로 밤마다 한집에 모여 조잘조잘 늦도록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결혼하고도 다행히 모두 경기도에 자리를 잡았는데 의정부, 일산, 과천에 살다 보니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매일 서로 통화하면서 수몰된 고향이 아쉽고 그리워 옛 추억을 떠올리며 아직도 깔깔 웃음을 토해내곤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셋은 59세 생일을 맞아 50대 마지막 생일을 특별히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딸들이 1박 2일을 추천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무서워 당일치기를 하기로 하고 일요일에 몹시 들뜬 기분으로 서둘러 만났습니다. 포천 가서 이동갈비 먹고 산정호수 한 바퀴 돌며 봄날을 만끽했지요.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코스로 분위기 좋은 카페로 향하던 중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차였기에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에 안전속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폭발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유리들이 좌르르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찰나에도 앞차와 부딪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브레이크를 밟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고 한참을 가다가 앞차와 부딪히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뒤를 돌아보니 큰 차가 뒤에서 들이받고 내 차를 한동안 밀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함께 탄 두 친구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천만다행'이겠지요. 차는 폐차를 해야 했지만 셋 다 겉보기엔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았고 우리 셋은 오히려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순식간에 서너 대의 레커차와 구급차가 왔습니다. 큰 차가 경차를 덮쳐 찌그러졌으니 다들 대형 사고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구급차에 실려 가고 싶진 않아서 일단 렌터카로 집에 왔고 차는 바로 폐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각자 사는 집 근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날 뒷좌석에 앉은 친구가 안전벨트를 한다기에 "야~ 이래 봬도 나 30년 무사고야. 고속도로도 아닌데 무슨 벨트를 하냐?" 말했는데 늘 큰 차 타고 다니던 그 친구는 무서웠는지 안전벨트를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지요. 그 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얼마 전 방영됐던 '서른아홉'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한 친구가 먼저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우리 셋은 같이 죽자고 했던 말을 되뇌며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만약 한 명이라도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홉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우리 셋은 제대로 액땜을 한 것 같습니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우정 키우며 잘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자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며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차가 이 정도로 망가졌는데 사람이 크게 안 다친 건 천운이 깃든 것이라며 앞으로 오래 살 거라고 하더군요.

사고 다음 날, 사고 차량 할아버지가 전화주셨기에 "우리들은 아직 젊으니까 치료받으면 곧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할아버지도 꼭 병원 가셔서 치료 잘 받으세요. 저희와 할아버지 모두 아주 운 좋은

하루였어요" 말씀드렸더니 많이 안 다쳐서 정말 고맙고, 차를 폐차하게 되어 불편할 텐데 어쩌느냐고 걱정해주셨습니다.

저와 10여 년을 함께해 온 귀요미 애마는 계획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이별의 아쉬움을 고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망가지면서 우리 셋의 목숨을 지켜줬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학습지 교사인데 차 없이 다닐 생각 하니 조금 걱정이 됩니다. 딸이 새 차 나오려면 7개월쯤 기다려야 한다고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빨리 완쾌되어 쌩쌩 자전거를 타고 나의 일터에서 귀여운 아이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우리 셋은 또다시 따뜻한 봄날 함께 태어난 기분입니다. 남편들은 내년 4월에 셋이 돌잔치도 해주고 이제부터 생일 기념도 같은 날 하라며 홀아비 안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지나고 생각할수록 그날은 운이 없는 날이 아니라 아주 운 좋은 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과 죽음은 멀고도 가깝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겠습니다.

* 추신 : 지금은 셋 다 완쾌되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Letter 15

5분의 축사

박삼하 |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

"아빠! 결혼식 때 성혼선언문은 오빠네 아버님이 하시고, 덕담은 아빠가 하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해줘."

딸과 예비 사위 결혼식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한다고 하기에 난 그저 참석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딸의 일방적인 전화 통보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대답을 망설이니까 딸은 예식장에 비치된 덕담을 그냥 읽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비치되어 있다는 덕담 예시 글을 그것도 제일 짧은 것이라며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읽어보니 죄다 바른생활책에나 나올법한 내용들이어서 나만의 축사를 써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엔 온통 축사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통

보받은 시점이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기에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아! 토요일이 결혼식이니까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축사를 완성해야 보완도 하고 연습도 할 텐데.'

고민 끝에 저는 메모지와 펜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딸과 예비 사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오전 일찍 예식장에 도착해서 메이크업 받고 친지분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 예정된 1시가 되었습니다. 식을 알리는 사회자 멘트와 함께 신랑 신부 입장, 사돈의 성혼선언문 낭독. 순식간에 나의 '축사'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두근두근 나대는 심장을 꼭 붙잡고 연단에 섰습니다.

"찾아주신 친지분들과 하객분들 그리고 사돈 내외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을 하고 특별히 딸의 직장동료분들을 소개했습니다. 딸이 영어학원에서 일하다 보니 우리나라 결혼식을 처음 보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원어민 선생님들을 보며 "외국인 친구들 손을 흔들어주세요~ Foreign friends! Wave your hand"라고 말했지만 제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았는지 손을 흔든 사람이 없어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천천히 더 큰소리로 "Please wave your hand"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원어민 선생님들이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보였고 하객분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고 반갑든지 나도 모르게 손을 높이 들고 흔들면서 "Thank you for being here today" 오늘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곤 속으로 "휴~ 잘 넘어갔다" 생각했죠. 참고로 전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어민 선생님들 덕분에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긴 저는 딸과 사위를 부르면서 "이쁘다" "듬직하다" 애드리브를 쳤습니다. 사실 결혼식 준비를 딸과 사위가 모두 했기에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영어로 "Thank you very much"라고 말했더니 하객분들의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부부간에는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며 믿음과 신뢰의 밑바탕은 철저한 자기관리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사위가 좀 힘들어할 때 딸이 했던 말을 딸이 했던 그대로 흉내 내며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하나도 못 먹고 있어 힝힝"하며 애틋하게 걱정하던 모습이 생각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개그 프로그램 유행어도 시도했습니다.

"가로 열고 (아빠도 토마호크 먹을 줄 안다) 가로 닫고~."

다행히 신랑 신부 포함 예식장 여기저기서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함께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위해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집사람이 간곡히 부탁한 내용이 있어 전달합니다."

일순간 예식장 안이 조용해지더군요. 약간의 뜸을 들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길.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축사를 마무리하고 내려오는데 사회자가 "와우! 아버님이 영어도 하시고 성대모사도 하시고 위트 있게 축사를 정말 잘하시네요."

말해주더군요. 예식을 끝내고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는데 여기저기서 엄지척을 해줬습니다.

신혼여행을 일주일 후에 떠나기로 한 딸이 나중에 전화해서 "아빠!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아빠 축사 이야기만 해. 그것도 축사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또 감사인사차 교회에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젊은 목사님 내외분이 축사 얘기를 하며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말이 별로 없는 제 모습만 봤던 서울에 사는 처남댁도 "이번 축사는 고모부의 완전 재발견"이라고 하더군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아보고 이렇게 많은 엄지척을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시작했던 딸의 결혼식 축사.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해낸 5분이란 짧은 시간은 저에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줬습니다. 아마도 없는 머리카락 빠져가며 나만의 스타일로 작성한 덕분이겠죠. 27살 둘째 딸한테도 벌써 축사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은 기회가 되면 꼭 결혼식 축사를 경험해보고 소중한 추억 쌓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 흔들어 줬던 원어민 선생님들, 엄지척을 보내주신 많은 분 그리고 저의 축사에 공감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얌전이

이얌전 | 인천광역시 웅진군 북도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 때문에 있었던 이야기를 몇자 적어 보냅니다.
어느 해 였던가, 아폴로 눈병이 심하게 돌았었어요, 내가 그 유행병에 걸려 혼난 적이 있었지요, 눈은 둥글게 모양 빨갛고 눈물나고 가려워서 아픈 안과를 찾아갔어요, 안과는 이층이였는데, 아예 올라 가려던 순간 이층에서 누가 말하드라구요, 얌전이 거기 서 있어, 몇초 지날까, 얌전이 거기 서 있으라구 또~또 짜증난다 하며, 화난 목소리로 서 있으라니까, 나는 한 발을 계단에 올려놓았는데 문득히 화가 나 뭐~야



누~구야 왜 나더러 씨 있으라는 거야,
눈 아파 죽겠는데 난, 중얼대면서
계단을 올랐죠. 안과 문을 여는 순간 웬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면서
나한테 오더라구요. 정말 뺀질뺀질귀리게
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헐, 난 웃음이
났어요. 한 10살쯤 됐을까 남자아이가
의자에 앉아 강아지 훈련시키며
얌전이란 말을 계속 한걸을 난, 날 보고
귀기 서 있어 하는 얘긴 줄 알고 기가
막혀 아무말도 안 나오더라구요, 그때
간호원이 환자 분 접수해야죠, 성함 쓰세요
데, 하고 나는 이얌전이라고 이름을 썼죠.



간호원도 웃더라구요, 아버님께서 예쁜
이름 지어 주셨네요, 하며 얌전이 얌전이
읽으니까 그 말을 듣던 강아지 훈련시키던
남자아이가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키~히~히
웃으며 하는 말 이름이 얌전이가 뭐야
웃긴다 하며 나를 또 쳐다보더라구요,
정말은, 얌전이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은
꼭 저마다 해석해서 꼬리물려 말리며
물었겠지요, 얌전이 이름 정말 그러네요,
태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우리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얌전이라고 지어주셨는지요,
옛날에 지은 엄마께 물어봤어요, 엄마는
쉭 웃으며 에~구 네 아버지가 악~ 말이



드시고 찡끼네 맹끼네하며 지은 이름일랑 어쩌시고,
엄마는 그 이름이 괜찮은데 뭐,
근데, 양 자는 한문이 없대요. 그러니
주민등록할 때나, 시험에 필요할 땐 꼭
본인한테 물어 와요, 양 자가 이게 맞느냐구요,
나는 그냥 네 하거든요, 한글만 알지 한자는
잘 모르거든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내 이름
양전이를 42해를 불렀으니까, 네 할 수 밖에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다시 나에게 새 이름
지어주신다면 어떤 이름으로 지어달라고 할까요,
한글날 맞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좋은 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0.5

이양전 올림

여성시대 사진방



[3245] 우리 집은 시골에 모두 모여 김장을 해요. 배추부터 고춧가루까지 모두 농사지은 거라 엄청 맛있어요.



[4103] 열심히 살아가는 전굴연입니다.



[1701] 우리 집 곳간이 꽉 찼어요. 고흥 큰언니가 농사지어준 소중하고 건강한 쌀 포대예요. 팔 남매 모두에게 사랑을 전하는 큰언니! 늘 고맙습니다.



[3900] 월동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구입니다.



[6301] 내년 여름을 위해 우뭇가사리 손질하고 있어요.



[8523] 작업장에 연탄난로 피우고 일합니다.



[7829] 마늘 씨 쪼개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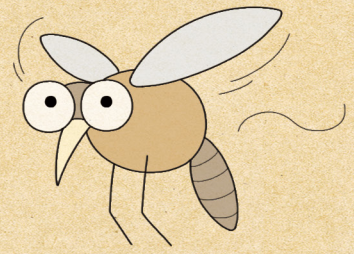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인천 광역시 남동구의
여성시대 가족 박소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고 누가 그랬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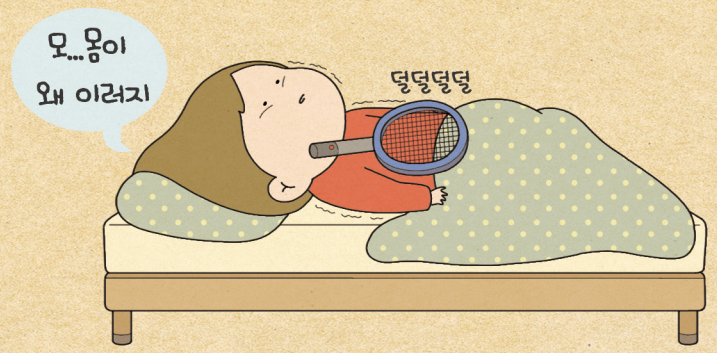


불만 끄면 엥엥 대며 극성을 떨어대는 모기 탓에
잠을 설친 게 벌써 며칠째.



1.5볼트짜리 건전지 두 개만 넣어주면
따닥!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밤의 불청객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간 눈으로 모기채를 휘두르다 잠이 든 어느 날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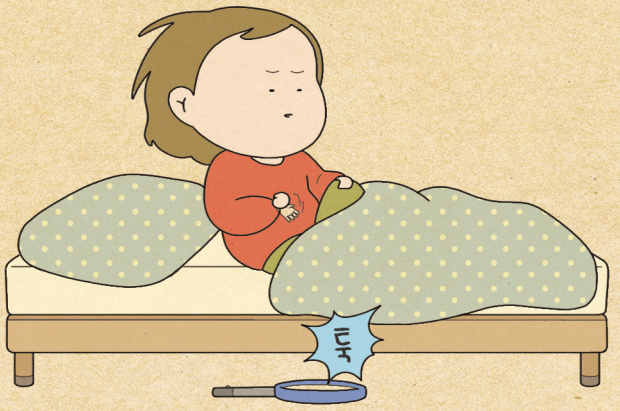
배 위에 모기채를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스위치를 눌러버렸고

아무리 힘을 줘도 팔 다리는 굳어 꼼짝 않고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몸을 옆으로 돌린 순간

배 위에 있던 모기채가 툭 떨어지며
몸의 전류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평소 좋지 않던 무릎이
전류 때문인지 더 쑤시고 아픈 통에
그날 밤을 하얗게 새우고 말았다.

모기채의 날카로운 기억 탓에
이젠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채
자애로운 헌혈자로 살고 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다

IBK구로디지털중앙지점 거래고객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젠큐릭스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기업 최초로 유방암 예후진단 제품
진스웰BCT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유방암 예후진단검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젠큐릭스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젠큐릭스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분자진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다. 유방암의 예후를 진단·검사할 수 있는 '진스웰BCT'를 비롯하여 폐암 동반진단키트 등 다양한 암 진단 제품을 개발하였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의 재발과 전이 위험을 검사하는 유방암 예후진단키트 진스웰BCT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과의 임상을 통해 성능을 입증하였고 지금까지 2,500명 이상의 환자 검체를 통해 임상시험을 완료하였다. 올해 27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식약처의 '시판 후 조사' 절차만 마무리되면 유방암 수술이 가능한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젠큐릭스의 진스웰BC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젠큐릭스는 암 환자의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암 진단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진스웰BCT는 한국 여성에게 적합한 검사로 항암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를 가려냄으로써 유방암 환자들이 가정과 사회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유방암 예후진단검사가 개발되어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지만 서양의 검사는 신체 조직이 다른 아시아 여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 때문에 젠큐릭스가 한국 여성에게 적합한 유방암 진단검사를 개발한 것이다.



과거에는 정확한 예후를 판단할 수 없어서 재발 위험이 낮아 화학항암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도 부작용을 감수하며 어쩔 수 없이 항암치료를 진행했지만, 진스웰BCT 개발로 인해 유방암의 예후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고, 저위험군 환자는 항암치료 없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젠큐릭스는 진스웰BCT에 이어 폐암(EGFR) 동반진단검사를 특허 등록했다. 동반진단은 환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특정 표적치료제에 효과를 보이는 환자를 선별하는





검사다. 표적치료제는 기존 항암제보다 효과가 뛰어나지만 표적항암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표적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반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현재 동반진단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암 종양 조직을 떼어내거나 폐에 바늘을 찔러 채취한 조직으로 검사를 하는 과정이 무척 고통스럽고 감염 발생 위험도 높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위치를 조금만 잘 못 잡으면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커다란 단점도 있다.

젠큐릭스는 혈액으로 검사가 가능한 폐암(EGFR) 동반진단검사를 개발하였다. 젠큐릭스는 올해 폐암(EGFR) 동반진단검사에 대한 특허를 받은 데 이어 유수의 대학병원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기존 검사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혁신적인 진단 기술 개발로 치료의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저희 젠큐릭스의 목표입니다. 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암 진단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싶습니다."



IBK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 안대현 지점장은 "젠큐릭스는 10여 년 전 창업 당시부터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라며 "대표님의 열정과 자부심을 보면 앞으로 1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음을 보였다.

젠큐릭스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크게 도약하길 기대한다.



IBK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 안대현 지점장(왼쪽)과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자.
2.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앞서가라.
3.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젠큐릭스

대 표 조상래 **전 화** 02-2621-7038 **홈페이지** www.gencurix.com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지하이시티 지식산업센터 15층

내 피부에 딱 맞는 ‘맞춤형 화장품’ 시대를 열다

IBK기업은행 범어동지점 거래고객

릴리커버 안선희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사람의 피부는 제각기 다르다. 내 피부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그 때문에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모두 다른 화장품을 써야 한다. 릴리커버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피부를 진단해 개개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일의 맞춤형 화장품 시스템을 개발한 릴리커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꾼다.

릴리커버는 뷰티테크 기업이다. 말 그대로, 뷰티와 테크를 결합한 기업으로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한다.

“피부는 나이에 따라 계절에 따라 호르몬에 따라 조금씩 변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쓰는 것이 좋겠죠. 저희는 이런 점에 착안해 피부를 진단하고 진단을 바탕으로 로봇이 3~4분 만에 화장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당시 안선희 대표는 피부진단기 ‘뮬리’를 사업모델로 삼았다. 손바닥 크기에 모양도 예쁜 휴대용 피부진단기 뮬리는 이마, 코, 뺨, 턱, 눈 등 다섯 군데 피부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피부 상태를 측정해준다. 그녀는 예쁘게 생긴 휴대용 피부진단기를 만들어 많이 팔아보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업계에 뛰어들어보니 소비자들의 니즈가 보였다.



“소비자들은 피부 진단 그 이후를 원했어요. 피부 진단이 나왔는데 다음은 어쩌라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진단에 맞춰 화장품을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의 사업모델이 완성된 거예요.”

뮬리를 통해 측정한 자료는 릴리커버의 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전송되고, AI가 인종과 나이, 성별로 수집한 11만 건의 피부 빅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여 피부 유형을 찾아낸다. 이후 릴리커버에서 개발한 로봇 ‘애니마’가 피부 진단에 따라 맞춤 화장품을 제조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피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많다. 하지만 피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은 릴리커버가 유일하다.

피부 진단부터 지속가능한 스킨케어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이 릴리커버의 핵심 무기이다. 올해 고객들에게 생산되어 나간 맞춤형 화장품 갯수만 3,000병 이상이며, 2주마다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받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자도 200명이 넘는다.





릴리커버는 아직 창업한 지 6년 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지만 맞춤형 화장품의 선두 주자로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기업 존슨앤드존슨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니베아에서도 한국 내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되어 독일에 있는 본사와 R&D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릴리커버에서 개발한 로봇 '애니마'는 홍콩과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다.

"피부를 진단하고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릴리커버의 시스템은 홍콩과 일본 외에도 아랍과 유럽 시장 등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계속해서 컨택 중이에요. 오히려 해외시장보다 국내에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연말에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입점할 예정이고 한시적이지만 여의도 더현대에도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술력으로 성장한 회사로써 그녀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작은 회사다 보니 핵심 인력이 이탈했던 뼈아픈 경험이 많아서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직원들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범어동지점 김희경 지점장은 "IBK기업은행은 릴리커버가 투자 받을 때 주주로 참여했을 만큼 커다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다"며 "젊은 여성 CEO가 이끄는 참신한 기업으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칭찬했다. 더불어 "IBK기업은행의 믿음처럼 앞으로 릴리커버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범어동지점 김희경 지점장(왼쪽)과 릴리커버 안선희 대표

릴리커버 안선희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소비자의 니즈를 읽어라.
2. 직원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자율적인 환경을 구축하라
3. 자신만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라.

릴리커버

대 표 안선희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12층
전 화 053-756-1140 **홈페이지** www.lillyshop.net

코너 속 편지

장용의 단·필·충

81 남편과 결혼한 이유
84 생애 최고의 선물
90 어흥 아저씨

주말엔 투유

101 수다쟁이 며느리가 어머님께
103 아버님을 위한 기도

사랑탐구생활

93 노을빛 사랑
98 사랑일까 우정일까 2



일러스트 | **조신애**

장용의 단·필·충

남편과 결혼한 이유

박미연 | 대전광역시 서구

"미안해. 내가 발 냄새가 좀…."

하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었다. 장마철이라 비가 신발에 새어 들어갔는지 가뜩이나 발 냄새가 있는 편인데 상황도 그러해 그는 두 발을 가리기에 급급했다.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하던 날에 말이다. 그날은 우리가 소개팅으로 만나고 난 후 정말로 얼마 되지 않은 날이었다.

"야, 이 녀석 진짜로 여자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제수씨, 이 녀석이 뭐가 좋아서 만나요?"

"아이고, 제수씨 눈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친구들의 넉살은 참으로 좋았다. 농담 반 진담 반이 섞여 있던 그 이야기 중에 나를 자꾸만 '제수씨'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조금 어색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 와중에도 그는 발에서 올라오는 냄새에 신



경을 쓰느라 곤욕을 치르는 눈치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남자를 계속 만나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는데 어찌 된 건지 그 꼼지락거리는 발가락의 움직임이 자꾸만 나의 시선을 끌었고, 이 남자는 내가 지켜주어야겠구나 싶은 마음이 확 들어버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그의 '군대 이야기'다. 그리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꾸만 마음이 열려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남편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다. 대전에 살던 그는 같은 훈련소로 가게 된 친구와 서울로 향하게 되었다. '의정부 306보충대'는 서울에서 지하철로 가면 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순차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참이었다. 일단 대전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잘 갔다. 그리고 의정부 가는 지하철을 탔다.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친구와 우정을 다지고 있던 그때! 그들

앞에 확 트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히 지하철을 탔는데 말이다. 왜? 지상이 나온 것이지?

"야, 우리가 왜 강 위에 있는 거지?"

"야, 이거 우리가 잘 못 탄 거 아니야?"

"분명히 지하에서 탔잖아?"

"그래, 그런데 왜 지금은 땅으로 나왔냐 말이야!"

"어떡해? 내릴까?"

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세주 같은 한 아저씨가 다가갔다.

"학생들, 이거 지하철 맞아요. 입대하나 본데 안심하고 잘 다녀와요."

울기 바로 직전이던 두 사내에게 그 아저씨가 잘 이야기해주었다. 지하도 가고 지상도 간다고. 지하철은.

1996년의 일이었다고 했다. 훈련소 찾아가다 생긴 일이었다고 배시시 웃으며 그가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정말로 결심을 해버렸다. 이 남자다! 내가 구제해주어야 할!

2002년 6월 처음 만나 월드컵 응원하며 데이트를 했고, 2006년 또 다시 월드컵 할 때 결혼했다.

"내가 군대에서 축구를 말이야…."

축구 응원하다 만났으니 당연히 군대 축구 이야기를 빼놓을 리 없던 그.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나는 그의 군대 이야기가 싫지 않았다. 그의 군대 축구 이야기는 또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이렇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으니 우리는 부부가 된 것이 아닐까!

세월이 흘러 두 아들에게도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남편.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건 나는 아직도 우리 남편의 군대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재미있는 건지….

장용의 단·필·충

생애 최고의 선물

조영찬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저는 1980년 6월 25일에 입대했습니다. 고향이 충북이라서 거주지인 대전을 떠나 충주공설운동장에 집합하여 충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 103보충대로 입영하였습니다. 3일간의 신체검사를 받고 당시 '동해안 경비사령부'에 배치받고 다른 장병들과는 달리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버스에 타고 나니 누군가 "우리는 아주 위험한 특수임무 부대로 가니 처음부터 관광버스로 모셔간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 말이 조용히 퍼지면서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기라도 하듯이 버스는 깊은 산골짜기로 난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달려서 어느 깊은 산골의 한 부대에 도착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당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동해안 경비사령부 신병교육대'였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6주간 기초훈련을 받고 동해안 경비사령부 57연대

1대대로 배치받아서 작전 사병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부대는 주문진 근처 바닷가에 있었는데 충북이 고향인 저는 처음에는 밤새 들려오는 파도 소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대 배치받고 약 한 달 동안을 별다른 임무도 없이 일과 중에는 작전과 사무실에 가서 사인펜과 매직을 갖고 차트 글씨 쓰기와 문구용 칼로 종이 자르는 연습만 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사수는 "차트병은 전쟁이 나면 총보다 매직펜과 사인펜을 먼저 챙겨야 한다"라고 수시로 강조하여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을 앞두고 소대장님이 얼마 후에 우리 대대 지휘 검열이 있으니 그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야간 사격 훈련을 할 테니 경계근무자를 제외하고 열외 한 명 없이 석식 후에 본부 내무반 앞으로 단독 군장 집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야간에 경계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이 하달된 후 선임 병사들은 볼펜심을 잘라서 거기에 야광테이프를 붙이고 그것을 M16 소초 가늠자에 부착시키며 준비하였습니다. 평소 밤눈이 어두웠던 저는 야간 사격에 자신이 없어서 불안하였습니다. 드디어 사격 훈련 시간이 되어 우리 본부 중대원들은 소대장의 인솔로 위병소 바로 앞 백사장으로 나가서 바다를 향해 타깃을 세워놓고 사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임병들은 사격하기 전에 가늠자에 야광볼펜심에 손전등을 비추고 그 빛을 이용하여 거의 다 5발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가늠자를 바라봐도 캄캄한 바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방아쇠를 당겼지만 역시나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사격이 끝난 후 불합격자는 남아서 얼차려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얼차려는 뒤로 취침을 하고 바닷물에 기어들어 가는 건데 9월의 바닷물은 차고 무지 짰습니다. 그런데다 파도는 계속 밀려와서 얼굴을 덮고 그때마다 다리가 붕 뜨면서 철모를 쓴 머리가 속으로 처박혀 짠물을 마셔댔습니다. 한 번 마시면 구역질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눈도 따가워서 아주 고역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선임 분대장님은 "너희들은 국민들이 소중하게 헌납한 총알을 허공에 날려 허비한 매국노들이다" 소리치며 조롱하여 몸도 힘들고 자존심도 몹시 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하고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얼차려도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바닷물에 젖은 군복과 전투화를 세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바다가 바로 옆인데도 부대 안에서는 늘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난 후에 당시 장교식당 취사병이던 김 상병이 제가 측은하게 보였던지 얼차려가 끝나면 조용히 장교식당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몸도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해줬습니다. 그때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간 사격을 못해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어느 날 아마 추석을 이틀인가 남긴 날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이제 일상이 되어 버린 사격 빵점에 얼차려를 받고 동기생과 연병장 한구석에서 경계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동해 위로 떠 오른 달은 마주 크고 밝은 보름달이어서 고향 생각과 부모 · 형제 생각에 서러운 달맞이를 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인기척이 나서 저희는 바싹 긴장하여 교본대로 상대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 본 그는 전령인 박 병장이었습니다. 그 전령은 저한테 "야 신병 너한테 소포 왔다" 하면서 라면 박스를 하나 전해주었습니다. 박스를 열어 보니 그 안에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과자와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기와 12개 들어 있는 초코파이 한 곽을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 치웠습니다. 다

먹고 나서 입가에 초콜릿이 잔뜩 묻어 있는 동기의 얼굴을 보고 서로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전령이 저만 잠깐 옆으로 불러내더니 귓속말로 "너 휴가 갈지 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황당하여 놀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군복무 기간이 33개월이라서 10개월이 되어야 첫 휴가를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고 근무를 마치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 내무반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때 내무반장이 저한테 오더니 내일 휴가를 가야 하니까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또 사격을 못하니까 놀림을 당하는 줄 알고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으려니까, 서울이 집이라던 김 병장은 자기의 군복을 빌려주고 한 선임병은 내 군화를 반짝거리게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대장님이 오셔서 저와 몇 사람을 호출하였습니다. 소대장님은 "이제 며칠 후면 대대 지휘검열이 있는 것 알지? 그때 야간 사격이 중점 검열 사항인데 너희의 사격 실력이 워낙 형편이 없어서 만약 북한군이 안다면 우리 군의 전략상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대신 잠시 휴가를 보내는 것이니 이런 배려를 해주시는 대한민국 육군에 감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일 오전 08시에 대대장님 신고 후에 바로 출발한다. 단 조 일병 너는 원래 이등병인데 특별 조치를 한 것이니 안전을 위해 휴가 갈 때와 복귀할 때 장 상병과 동행하도록. 알겠나?"

그제야 정말 황당한 상황을 파악한 저는 창피한 것도 잠시 설렘과 불안 등의 온갖 감정이 복합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근무도 열외로 해주었으나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파도 소리는 왜 그렇게 크게 들렸고 달빛은 왜 그다지도 밝았

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음 날 비몽사몽간에 대대장 신고를 마치고 장 상병님과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다 되었고 마침 추석 전날이라서 대전행 기차는 입석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 차라리 하루 자고 내일 일찍 가자는 장 상병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자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취사병으로서 평소에 후임병들에게 자상했던 장 상병님은 내 뜻을 따라줬습니다. 당시 장 상병님은 홍성이 집이라고 했는데 대전에 새벽에 가면 홍성까지 가는 차가 없었는데도 저를 배려해준 장 상병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대전역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나는 장 상병님과 대전역에서 헤어지고 거기서부터 약 4km 떨어진 서대전역 근처에 있던 집을 향해 구보로 달려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도로를 숨이 차면서도 단숨에 달려 집에 도착해서 "엄마" "아버지"를 외치며 집으로 달려들어 가서 어머니를 안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한참을 복받치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란 속담처럼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놀라신 부모님들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저는 김치 하나만으로 밥 세 공기를 후딱 해치웠습니다.

식사 후에 정신을 차리신 부모님은 아직도 불안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제가 사고를 치고 탈영한 줄 알고 몹시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대에서 사격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사격을 잘해서 포상 휴가를 온 것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내 생애 최고의 추석 선물인 80년 주문진에서의 추석 선물을 회상하고 그때의 설렘과 기쁨을 되새기곤 합니다. 군대에서는 사회에서 겪지 못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많



다는데 사격을 못 해서 특별 휴가를 받은 일은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입대 3개월 만의 휴가라니!

물론 그 후에 부모님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지만 42년이 지난 지금도 내 친구들은 아직도 내가 군대 시절에 '동해 야간 사격 특등 사수'였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후에 태어날 외손주가 제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외할아버지의 생애 최고의 추석 선물 무용담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장용의 단·필·충

어흥 아저씨

최정숙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나는 36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대부도 우체국 내 교환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어느 날 전혀 생소한 진해의 모 부대 해병대 상병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소개받아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내심 궁금했다.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났을까? 두 번째 편지를 받았다. 고지식했던 나는 신뢰할 수 없는 그 누군가로부터 나를 알게 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 신경은 쓰였지만 그냥 그렇게 흘려버렸다.

그러던 중 세 번째 편지가 왔다. 미안함이 앞섰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답장을 기다리며 편지를 썼을 것이란 생각에 그제야 내심 어떤 분인지 궁금했다. 야간 근무 중 홀로 교환대에 앉아 답장을 썼다. 제일 궁금했던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는지, 별 내용 없이 나의 궁금한 부분만 썼던 것 같다. 바로 답장이 왔다. 그는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보냈다며 답장받고 너무 감동했다는 내용이었다.

약간은 어색했지만 군대 생활의 활력도 주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한 유머 있게 그날그날 교환실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써 보냈다. 그리고 이름 뒤에 '씨'를 붙이기보다는 호랑이띠라 했으니 '어흥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다.

어흥 아저씨 군 생활은 잘하고 계시는지요?

이곳은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일꾼을 구하기 위해 교환실은 마치 전쟁통과 같습니다. 새벽부터 영희네 집 전화통이 불나는 걸 보니 아마도 오늘은 영희네 모내기를 하는 날인가 봅니다.

또 어느 날에는 319번 할아버지께서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딸네 집을 대달라고 하시는데 이럴 땐 참 난감합니다.

어흥 아저씨~ 어제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통통배를 타고 선재도, 탄도, 풍도, 불도, 도리도 등을 여행했습니다. 그중에 인상 깊은 섬이 도리도였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무인도이지만 겨울이 되면 풍도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굴과 바지락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섬이라 고개만 도리도리해도 섬 전체를 볼 수 있어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으며 몇 개월이 흘러갈 즈음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 병철이가 휴가를 나왔다. 손끝이 베일 듯 잘 다려진 군복, 바지 밑에 감춰진 링 소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경쾌한 소리를 냈다. 친구와 함께 코스모스 길을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나는 한껏 우쭐했다. 그리고 학창 시절 개구지던 친구가 충실히 군 생활을 해 나가는 것 같아 대견했다.

다방에 들러 커피 주문을 하고 친구와 마주 보고 앉았다.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다. 웃음이 나왔다. 병철이는 나의 웃음에 답이라도 하듯 한마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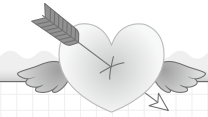
"어흥 아저씨~."

나는 "너였어? 너구나" 몇 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궁금증이 풀려나갔다. 나는 또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데 왜 나였어?" 그러자 친구가 꺼낸 말에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나 이제 상병 달았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어흥 아저씨 제대하거든. 그때까지만 봐주라. 입대해서 줄곧 여자친구가 없다고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졸업하고 연락할 길은 없지. 죽겠더라고. 그런데 입대 전에 네가 교환실에 근무한다는 소릴 들었어. 그래서 우체국 교환실 직원 중 네 이름을 쓰면 답장해 주겠지 했는데 한 번 보내 두 번 보내 답이 없으니 내가 어떻겠냐? 얼차려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다음은 너 상상에 맡길게. 세 번째 너에게서 답장받고 내무반 전체가 네 편지 돌려가며 읽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네 덕분에 군대 생활 편하게 하고 있다. 고마워~."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헛웃음이 나왔다. 내일이면 부대로 복귀한다는 친구와 헤어지며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꽃잎을 무심코 하나를 따서 수첩에 꽂으며 생각했다.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처음부터 도움을 청했다면 난 너를 위해 일병에서 상병까지 근사한 포대기를 두르고 최선을 다해 너를 업어 키웠을 텐데. 잘했다~ 잘했어~ 어흥 아저씨~.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모르지만 건강하게 잘 계시지요?'



사랑탐구생활

노을빛 사랑

이남희 | 경남 양산시 평산중앙로

우리 부부는 20년 넘게 주말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업무상 현장을 옮겨 다니는 직업이다 보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천안 일산 포항 광양 사천 전국구랍니다.

쉰 중반 되니 이젠 아이들도 다 커서 딸은 결혼해 아기를 낳아 우리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 만들어 주었지요. 아들은 대학 4학년 사범대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저는 언제나 거의 혼자 지내는지라 친구랑 지인들은 일명 자유부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거 있죠.

요즘은 사천 광양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매주 금요일이면 두 시간을 달려 집으로 옵니다.

"부인! 퇴근 시간 맞춰 학교 앞으로 갈 테니 나오시오."

"예이~ 감사감사하옵니당! 쉬엄쉬엄 조심히 오이소~."

나는 중학교 행정실 근무 6년 차. 남편은 올 때만 되면 늘 이렇게 전

화를 합니다. 직원들이 어쩌면 그리 남편이 한결같냐며 대단하다고 엄지척 부러워들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붙어살면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싸울 텐데 수십 년 떨어져 살면 이리됩니다요."

"이 주무관님은 무슨 복이래요 정말? 참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어김없이 시간 맞춰 교문 앞에 대기한 서방님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땅딸한 키에 배 볼록,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속알머리 없는 외모지만 미소 하나만큼은 백만 불 안동 하회탈 비교 불가랍니다.

집밥 좋아하는 서방님을 위해 가방 휘리릭 던져놓고 저녁 식사 준비 후다닥~ 동동거리며 콧노래 흥얼~ 손발이 바쁩니다. 쌀 씻어 압력솥 가스레인지에 칙칙폭폭~ 받아놓은 쌀뜨물로 절구에 간 새우젓 파 송송 참기름 넣고 찜기 올려 계란찜 몽글몽글~ 배추 겉잎과 무청 삶아 들기름 된장 조물조물, 냉동실 얼려놓은 거 꺼내서 뽀얀 쌀뜨물 굵은 멸치 투하 자글자글 끓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되지 뭐가 그리 바쁩니까? 엉덩이도 몬붙이고…. 많이 하지 말고 대충 먹읍시다."

"네네~ 한두 가지밖에 안 합니더."

구수한 저녁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이 있는데 바람도 쐴 겸 대구에 아지매들캉 댕기 올까 싶은데예?"

"가려구? 그 집이랑 친해? 축의금만 하지? 나 혼자 멍하니 TV나 보고 있으라고?"

"아, 그리 친한 분은 아니지만 가볼까 했는데 당신이 그리 말하니 또 그렇네. 축의금만 부탁하고 그라믄 우리 놀러 가입시더."

"놀러? 어데 가고 싶은데 있어?"

"우리가 30년 넘게 부산 양산에 살았는데 그동안 웬만한 곳 다 가봤는데 낙조가 멋지다는 다대포 몰운대를 한 번도 안 가봤다 아입니꺼?"

"다대포? 거그 엄청 먼디?"

"멀어봤자지 뭐? 집 앞에 오는 버스 타고 지하철 환승해서 종착역 내리면 바로라캅디다. 대중교통 오때요?"

"함 가볼까 그라믄."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버스에 올라 25분 노포동 지하철 환승, 1시간 30여 분 동안 40군데 역을 거쳐 드디어 다대포 도착. 남편은 자차로 운전만 하고 다니던 사람이라 모든 게 신기하고 생소한 모양입니다.

"카드 찍어? 나갈 때도 카드 올리는 거야? 아따 사람들 많네 참말로~."

드넓게 펼쳐진 다대포 해변 모래사장을 맨발로 거닐며 사르르 여유를 만끽합니다. 발바닥이 간질간질 마음이 말랑말랑 배시시 웃음이 번집니다. 소나무 숲에는 동무들끼리 돗자리 깔고 웃음꽃을 피우는 어르신들, 도시락 펼쳐놓고 맛점하는 가족들, 모래 놀이하며 깔깔깔 신난 꼬맹이들, 커피 마시며 데이트하는 연인들. 코로나로 답답했던 스트레스가 파도에 말갛게 씻겨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모래사장 뒤편으로 가니 맛집들이 즐비하고 한쪽에서는 장고를 멋드러지게 치며 신명 난 가락이 흥을 돋우고 자연스레 손뼉을 치며 어깨춤이 덩실거려지더라고요.

"출출한데 당신 뭐 먹고 싶어?"

"그러게 이제 좀 배고파지네예."

파전 냄새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손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 연어 좋아하니까 그거 한 접시랑 난 해물파전에 한잔 어때?"

"그라입시더 좋심더."

테이블에 반찬들이 차려지고 싱싱한 연어랑 따끈한 해물파전 맛이 기가 찹니다.

"하하하~ 좋구나 좋아. 차 안 가지고 오니 술을 다 마시네 그려. 근디 이기 머꼬?"

"와예?"

"참말로 명언일세그려.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고럼 고럼 지당하신 말씀!"

소주병에 쓰여 있는 문구에 빵 터졌지 뭡니까. 그렇게 허기를 달래며 맛점하고 몰운대 산책코스 숲에 올랐습니다. 빽빽한 소나무 사이를 거닐며 이게 얼마 만인가 싶어 세상 다 가진 듯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지는 거 있죠. 꼭대기 전망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인증샷을 찍으며 절로 감탄사 연발입니다.

"슬슬 내려갑시다. 그래야 그 유명한 멋진 석양을 볼 수 있지. 일몰시간이 5시 40분여."

"그래요 살살 조심조심 내립시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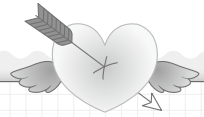
장구를 치던 그 자리에는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어 다가가 보니 김광석 님의 노래들을 가을 감성 묻어나게 기타 치며 열창을 하더라고요. 잠시 앉아 귀 호강하고 아까 그 해변으로 가노라니 어느새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입니다.

꾸며놓은 데크 계단을 올라 명당자리에 서서 모두 넋을 잃고 노을빛에 젖어 들었습니다. 수십 컷을 찍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다대포 몰운대를 노을 맛집 석양



맛집이라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일출은 일출대로 멋지고 일몰은 일몰대로 아름답습니다. 몇 년 전 가족여행 가서 보았던 코타키나발루의 선셋 광경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감동이었답니다.

둘이 손잡고 돌아오며 우리는 입을 모아 "오늘 생각보다 참 멋졌어. 맛있었어~ 좋네~ 좋아~" 고개를 끄덕끄덕 공감하며 눈을 맞추며 하루를 소중한 인생 앨범에 꽂아 넣습니다. 오십 줄 노을빛 물들어가는 삶의 길목에서….



사랑탐구생활

사랑일까 우정일까 2

이미현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드디어 내일 출발! 항공사에서 계속 안내 문자가 온다. 나의 짐은 작은 캐리어에 15킬로 정도 한 달살이 짐이다. 원래 난 이 정도면 충분하고 어디 가든 거기에 적응하며 살자 주의이기에 이사 가듯이 짐을 챙기는 여행자들이 보면 나를 엄청나게 걱정한다.

그런데 항공사 문자. 요즘 짐 분실이 많이 발생하고 짐 도착 지연도 많이 발생하니 중요한 짐을 따로 챙겨서 기내에 가지고 타라는 안내였다. 출발 전날 밤 다시 짐을 챙겼다.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며칠 정도 살아낼 짐을 분리해서 챙겼다.

처음 혼자서 유럽에 가는 나.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출발!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20분 정도 걸어서 도착. 땀이 흐른다. 새벽 6시인데 배낭을 버스 승강장 대기실에 내려놓고 6시 15분 버스에 캐리어를 싣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출발하고 몇 분 지나, 앗! 나의 배낭 어디 있지? 안 보인다. 버스 승강장에 두고 나만 버스에.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다시 뒤돌아 갔다. 그다음 공항버스는 만석, 다음 버스는 2시간 후, 비행기 탑승 시간은 11시 30분. 다행히 배낭은 얌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가방을 챙겨 택시로 산본역으로 가서 전철을 탔다. 배가 아파서 급하던 참에 화장실도 해결했다.

다행히 시간은 넉넉했다. 티켓을 확인하며 아이가 옆에 있어도 괜찮다고 넓은 자리를 신청해서 다행히 17개월 된 프랑스 아이와 함께 가는 길은 편안했다. 13시간 비행인데 힘든지 모르고 도착했다.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해 그냥 사람들 따라간다. 혹시나 해서 티켓을 확인했지만 안내 표지에 zone4라는 표시가 안 보인다.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자. 불어는 '봉주르, 메시, 메시보끄'뿐이다. 일단 티켓을 보여주며 "나 이 비행기 타러 간다. 어디로 가야 해요?" 영어로 말하니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기는 우리나라와 층 개념이 다르다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두세 번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타야 할 게이트에 도착했지만 혹시나 내 영어가 통할까 하여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 물어보았다.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준다. 그것도 영어로.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싶었다. 와이파이 사용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영어로 뭔가 통할 수 있다는 것에 자신감도 생겨 으쓱해지기도 했다.

부르노에게 전화가 왔다. 브레스트 공항에 마중 올 거니 비행기 연착되면 다시 연락하라고. 20분 정도 연착되고 무사히 브레스트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은 아주 작고 특별한 절차가 전혀 없다. 기내부터 휴대폰 로밍을 시도했지만 안 된다. 파리 드골 공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되었는데…. 캐리어도 금방 나온다. 나도 캐리어

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문밖에 나왔지만 부르노가 보이지 않는다. 휴대폰을 계속 시도하지만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껐다 켜도 마찬가지.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된단다.

일단 문밖에 나오면 부르노가 기다리겠지.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시간도 확인할 수가 없다. 비행기가 지연되었으니 아마 현지 시각 밤 11시 정도 되었을 것이다. 기웃기웃 이 차 저 차 살펴보지만 부르노는 어디에도 없다.

다시 공항으로 들어와 와이파이 쓰고 싶다고 했지만 모른단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있느냐고 하니 없다며 자기들 퇴근해야 한단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다시 두리번두리번 휴대폰 가지고 아무리 주물럭거려도 소용없다.

버스도 없고 택시도 거의 떠나고 남은 것 한대뿐. 사람들도 한두 명 떠나고 남은 사람은 커다란 개와 캐리어 몇 개를 가지고 서 있는 낯선 외국인 남자 한 사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그 남자분에게 다가가 말했다.

"도와주세요. 제 휴대폰이 안 되는데 제 친구와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 남자분 내 짧은 엉터리 영어를 알아듣고 적어두었던 부르노 전화번호를 불러주니 바로 전화해 부르노와 불어로 통화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주차장에서 한 시간을 기다린 부르노가 통화하면서 달려왔다.

주말엔 투유

수다쟁이 며느리가 어머님께

이정애 | 경기도 부천시

엄마! 엄마의 하나뿐인 며느리, 하나에요. 아주 오랜만에 편지를 써봅니다. 사실 출산하자마자 엄마한테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신생아 생활 패턴에 맞추다 보니 뭐하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제야 편지를 써요.

누군가가 저에게 최근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물어본다면 엄마와 함께했던 3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엄마랑 이렇게 편하게 속내를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다들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태어나서 수술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무서웠지만 출산 회복 기간에 엄마랑 매일 아침 폭풍 수다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입에 붙은 것 같아요.

수술 후 첫날밤에는 온갖 악몽을 꾸고 가위눌린 듯 온몸이 공포로

뒤덮였는데 엄마가 제 몸을 한참 동안 주물러 주셨죠. 전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어루만진다는 느낌이구나.'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눈물 날만큼 따뜻했어요. 어느 누가 며느리를 이렇게 대해줄까 싶었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도 벌써 2개월하고 86일이 지났네요. 아이 둘은 정말 달라요. 뭐든 따따블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큰 힘이 돼요. 10년간 함께한 이 남자, 정운호! 성품 하나는 진짜 진국이에요. 이 성품은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게 확실해요. 저는 진짜 결혼 잘한 것 같다고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한테 늘 말하고 다닙니다.

엄마! 귀한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도 잘 먹이고 잘 챙기고 있지만 엄마 아들, 불혹의 나이답지 않게 젊은 남편으로 보일 수 있게 제가 잘 내조해볼게요.

엄마! 다가오는 엄마 생신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만나 뵙지 못해서 아쉬운 대로 엄마 더 예뻐지라고 콜라겐 크림 선물로 준비했어요. 아끼지 말고 팍팍 써서 공주님 되시라고요.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날은 아부지한테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하셔요. 칼질해야지요.

나중에요. 엄마 퇴직하고 오토바이 면허 따시면 우리 둘이 가죽 재킷 사러 가요. 가죽 재킷 맞춰 입고서 정씨 남자들 빼고 우리 공주들끼리만 데이트해요. 그리고 엄마! 다가오는 손녀 백일 파티에도 오셔야 하는 거 아시죠? 준비물은 환한 미소. 얼굴 근육 풀고 오셔야 해요. 엄마랑 함께 티타임 가져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 아쉽네요.

엄마는 이 편지를 보고 우실랑가? 아닌가? 빵 터져서 웃으실랑가? 사랑하는 엄마, 오늘도 신바람 나는 하루 보내셔요.

- 수다쟁이 며느리가 젊은 시어무니께 올리는 편지

주말엔 투유

아버님을 위한 기도

김세진 | 서울 강동구

아버님! '시' 자가 들어가면 질색하는 세상이다 보니 시부모님과 위아래층으로 붙어사는 저에게 사람들은 자꾸만 물어봐요. 불편하지 않냐고요.

25살. 그 철없는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과 임신을 선택한 저는 여태껏 단 한번도 어머님, 아버님을 단순히 남편의 부모님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또 다른 가족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님과는 죽이 잘 맞아 주위에서 딸로 착각하기도 하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는 남편보다 종일 더 많은 시간을 아버님과 보냈던 만큼 사이가 각별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밝고 건강하시던 우리 아버님. 예쁜 손녀, 손자 안겨주어 고

맙다고 아낌없이 표현해주시던 아버님. 언제 어디서나 며느리 자랑을 하시던 아버님. 그런 아버님께서 갑자기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어요.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한 췌장암. 아버님께서 매일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췌장암이었다니. 종종 속이 아프다고 하시던 때 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게 너무도 죄송스럽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암? 아버님이 암이라고?' 믿을 수 없었고 부정하고 싶었어요. 먼발치에서나 접하던 암 환자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니. 터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암의 위치가 주요 혈관과 붙어 있어서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3개월 본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정말 뼛속까지 실감했어요.

하지만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님께서 강한 의지만 갖는다면 그까짓 암 따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고 항암의 고통은 그간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과정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지옥 같은 삶이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아버님은 점점 더 말라가고 쇠약해져 갔지요. 웃음도 점점 잃기 시작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셨어요.

정말 우리 가족 모두가 마치 정전이 된 방에서 다시 전기가 공급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시간이 계속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둠 속에서 한줄기 촛불처럼 빛나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었고 아이들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아버님께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갈 의지와 힘을 갖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던 것 같아요.

그 덕분인지 현재 8개월간 항암 치료를 8차까지 마치고 중간 CT까지 찍은 결과, 기적처럼 암 덩어리의 크기가 많이 줄어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대수술이 되겠지만 그래도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사의 한마디에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몰래 참아왔던 눈물을 토해내듯 쏟아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10월 셋째 주, 아버님의 수술 날짜가 잡혔고 우리 가족은 또 한 번의 기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태어나서 무언가를 위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부디 신이 있다면 이 간절함이 닿아 아버님이 조금만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우리 가족이 함께할 테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셔야 해요. 우리 꼭 이겨내 봐요. 아버님은 누구보다 강인한 분이니까 꼭 해내실 거예요. 꼭 웃으면서 다시 만나길 바라봅니다. 아버님 정말 많이 사랑해요.

공유의 식탁

돼지고기 레시피

김광배 님 | 돼지 간장불고기

간장과 사이다를 6:4 비율로 섞고, 후추·다진 마늘·생강·참기름을 넣은 양념을 만들어 얇게 저민 돼지고기 뒷다리에 숟가락으로 뿌립니다. 30분~1시간 두었다가 볶아서 토치로 위를 그을려주면 아이들 밥반찬으로 끝내줍니다. 남으면 김치볶음밥에 넣어 또 한 끼, 김치찌개에 넣어 먹어도 양념 된 고기라 맛있습니다. 달걀 스크램블에 부추와 함께 간장불고기를 섞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길환 님 | 돼지고기 토마토스튜

[재료] 감자 1개, 양파, 샐러리, 토마토, 토마토주스, 토마토케첩, 올리브유, 돼지고기(잡채용이나 카레용 고기), 레몬즙, 소금, 후추

돼지고기를 올리브유에 볶다가 깍둑썰기한 감자와 양파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토마토 다진 것도 달달 볶다가 물과 토마토주스 4~5컵+토마토케첩 3~4숟가락 넣고 푹 끓여준 뒤, 마지막에 샐러리를 잘게 다져 넣고 또 푹 끓여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국물이 자작해지면 접시에 담아 레몬즙 약간 뿌려 먹으면 맛도 영양도 최고인 돼지고기 토마토스튜가 만들어져요.

이호성 님 | 짜장 고기

삼겹살을 프라이팬에 넣고 구워주세요. 여기에 짜장 분말을 물에 개어 돼지고기에 살살 뿌리며 볶아주세요. 고기가 다 익으면 양배추, 양파, 파, 설탕을 넣어 한 번 더 볶아주세요.

채를 썬 대파를 위에 올리면 달짝지근한 짜장 고기 완성! 거기에 면을 삶아 얹어 주면 짜장면!

김나현 님 | 늙은 호박을 품은 돼지고기

늙은 호박을 반으로 갈라 속을 파내고 듬성듬성 잘라 전자레인지에 넣고 몇 분 돌려 익힌 후 껍질을 벗깁니다. 호박과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고 들기름과 마늘을 넣고 볶듯이 익히다가 고기 색깔이 달라지면 물을 붓고 익혀요. 끓으면 된장, 고춧가루, 간장 넣고 완전히 끓으면 불린 당면, 잘게 썬 대파 넣고 다시 끓입니다. 국그릇에 덜어서 익은 당면을 숟가락으로 퍽퍽 끊어서 밥 넣고 먹으면 익은 호박의 단맛과 돼지고기의 맛이 어우러져 풍미가 좋아요

버섯 레시피

홍사만 님 | 버섯들깨탕

버섯들깨탕은 가을 보약. 버섯들깨탕에 감자옹심이 넣으면 건져 먹는 맛이 있고 칼국수면 넣으면 든든한 한 끼 되지요. 표고버섯, 목이버섯, 느타리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새송이버섯에 고가의 송이나 능이버섯도 추가하면 좋지요. 들깻가루 반 컵, 조선간장 2큰술, 멸치와 다시마 등 육수. 생략 가능 재료는 다진 마늘, 대파, 들기름 1큰술. 육수에 버섯 넣고 들깻가루 넣고 옹심이 풍덩, 없으면 떡국떡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칼국수면도 풍덩 넣어주면 고소하고 구수하고 맛난 버섯들깨탕.

김미옥 님 | 버섯덮밥

느타리, 만가닥버섯, 송이, 팽이, 표고버섯 다 가능합니다. 저는 저렴하고 잘 찢어지는 느타리, 만가닥 버섯을 주로 이용합니다.

밑동을 아낌없이 잘라낸 버섯을 2~3등분으로 찢어 중불에서 기름에 달달 볶아주다 숨이 죽으면 허브솔트 한 꼬집 넣고 약불로 줄이고 달걀 1~2개를 푼 달걀물을 부어준 후 뚜껑을 덮고 불을 약약약 정도에 두고 3~5분, 불을 아예 끄고 뚜껑은 덮어둔 상태로 뜸을 들입니다. 덮밥 그릇에 담은 밥 위에 소복이 부어주면 푸짐하고 맛있는 한 그릇 음식 완성.

조혜린 님 | 버섯샐러드

느타리버섯을 씻어서 물기를 빼주고 1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프라이팬에서 볶으면 수분이 날아가요. 다른 그릇에 담아서 식히고 프라이팬에 마요네즈 2큰술, 식초 1큰술, 통깨 2큰술을 넣어 잘 저어주세요. 여기에 식혀둔 느타리버섯을 버무리면 느타리버섯 샐러드가 된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해 먹는데 간편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등어 레시피

김정미 님 | 미소된장 고등어조림

깨끗하게 손질한 고등어에 칼집을 낸 후 7~80도의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바로 찬물에 담가 두면 비린 맛이 완전 제거됩니다. 얇게 편을 썬 생강을 깔고, 고등어와 물 청주를 넣고 한 번 끓여줍니다. 여기에 설탕, 요리술과 미소된장을 풀어 넣고 걸쭉하게 졸여줍니다. 좀 더 진한 단짠 맛을 원하면 간장 한 스푼 추가. 흰 쌀밥과도 잘 어울리지만 저는 흰죽과 함께 먹었는데 구수하고 담백한 흰죽과 미소된장 고등어조림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이나 아이들 반찬으로도 좋아요.

이예진 님 | 고등어추어탕

저는 추어탕을 좋아하는데 추어탕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고등어추어탕을 자주 해요. 고등어를 찜솥에 넣고 푹 익힌 뒤 살을 발라 으깨어 고춧가루, 후춧가루, 마늘, 간장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다시마 육수를 끓여 우거지와 고등어 살을 넣고 팔팔 끓이고, 부추와 대파, 숙주나물도 넣고, 국간장으로 간 하고, 취향따라 다진 고추, 방아잎, 산초가루를 추가하면 더 맛있습니다. 미꾸라지 추어탕과 다를 게 없고 살코기도 듬뿍 먹을 수 있어요.

윤지연 님 | 고등어육개장

저는 남편이 잡아온 고등어로 고등어육개장을 만들어요. 고등어를 쪄서 뼈를 발라주세요. 시래기 배추와 된장, 고춧가루, 간장, 마늘 등으로 양념하여 육수에 넣어 끓여주세요. 감자나 수제비 등을 넣으면 더 맛나요.

고구마 레시피

장은희 님 | 고구마 빼떼기죽

팥은 삶고 양대콩은 불려둡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씻은 마른 고구마(빼떼기)와 양대를 넣고 푹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삶은 팥을 넣어주고 식소다와 설탕으로 간을 맞춥니다. 팥죽도 아닌 것이 맛은 팥죽 같은 맛있는 빼떼기죽이 완성됩니다. 찬바람이 부는 날 이거 한 그릇 먹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식어도 정말 맛있어요.

온전한 휴식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지난달, 단풍빛을 얘기한 건 좀 섣불렀다. 단풍의 농담을 말하기엔 11월 중순께가 마땅한 때인 듯싶다. 그런데 왜 나는 10월 중순이 단풍철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두 MC의 '월간 여성시대' 글쓰기는 늘 한 달씩 앞서간다. 그게 이유가 될까?

'프레타 포르테', '오트 쿠튀르' 같은 세계 양대 의상 박람회 겸 패션 컬렉션 발표회는 6개월씩이나 앞서간다. 겨울에 SS(봄, 여름) 여름에 FW(가을, 겨울) 시즌을 선보이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날씨가 피부에 와닿는 느낌과 전혀 상관없이 한여름에 모피 코트를, 한겨울에 수영복을 입고 일을 한다. 종사자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한여름에 털옷 입고 촬영해도 땀이 하나도 안 난다고 천직이라며 웃었다.

여성시대 책이 나오는 날보다 3주 정도 미리 원고를 쓰다 보면 정작 매달 10일이 되면 뭔가 착 달라붙는 느낌이 덜하다. 날씨 등등 하여튼 이미 지난 얘기가 된다.

고등학교 동창회는 학교에 있던 친구들의 은퇴로 거의 전원 출석이다. 이 땅을 떠나 산 지 오랜 친구가 귀국했다기에 만나러 나갔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해서 당연히 음대에 진학했는데 중간에 전공을 치의예과로 바꾼 후 치과의사로 은퇴한 친구다. 전공 바꾼 계기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음악 전공한 여성들을 살펴보니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단다. 시간표대로 학교 공부하고, 어제보다 더 나으려면 하루 4시간, 어제보다 더더더 나으려면 하루 6시간 연습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늘 연습, 연습, 연습이 생활의 모든 것이었단다. 지금도 음악을 너무 사랑한다며 대중음악, 클래식 구별 없이 늘 음악이 있어야 산단다. 이번에는 시청 근처 숙소에 머물며 명동이고 어디고 걸어 다니는 게 신이 난단다. 숙소의 아침 식사가 환상이라기에 무슨 반찬인지 물으니 명란젓이 나와서 색다른 맛이란다. 명란젓에 그리 감동하다니, 너는 감수성이 60년대에 머물러 있구나 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얼마전 모처럼 KTX 타고 부여로 향했다. 공주에서 내려 한 30여 분 더 가야지만 차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된다. 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여가 그냥 좋다. 무량사로 작은 소풍을 떠났다. 사람 그림자가 없어 한적했고 새로운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옛날 느낌 그대로 낡아가고 있는 무량사! 옛날에 쌓은 돌담의 돌이끼도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바람 소리 새소리 한창 듣다가 돌아왔다. 비로소 남들의 단풍놀이가 이해됐다.



받아들이며 익어갑니다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이건 치료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무릎에 '퇴행성관절염'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리한 운동은 삼가시고, 더디게 진행되도록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은 일단 연골주사 맞고 가세요."

"아… 그럼 앞으로 축구는 안 해야 하나요?"

"음… 무릎에 안 좋은 운동 중 대표가 축구예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좀 잦아들면서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축구. 한 달 전 즈음, 여성시대 조연출이 속해 있는 대학축구 동아리 경기에 초대를 받았다. 그 후, 한 달 내내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았다. 오랜만에 젊은 친구들과 호흡하니 들떠서 골 맛까지 기어이 보겠다고 강슛을 몇 번 때린 적은 있었지만, 강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는데 희한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불편한 기운이 가시지 않

아 '진짜 사나이' 시절 단골이 된 정형외과에 오랜만에 방문했다. 원장님은 축구는 그만하고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를 권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눈은 참 좋은 편이었다. 서른 전까지 양쪽 다 1.0 이상의 시력을 유지했다. 마흔 넘어서부터는 한쪽 눈에 난시 기운이 생기긴 했지만, 방송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안경을 쓰진 않았다. 그런데 재작년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시작하면서 급격히 눈이 안 좋아졌다. 노안이 온 것이다. 멀리 있는 것은 괜찮은데 가까이 있는 것이 잘 안 보였다. 시험공부를 하려면 교재를 봐야 하는데 작은 글씨는 쉽지 않았다. 액세서리 용도로 알 없는 안경을 가끔 쓰지만, 평소엔 안경 쓰는 것을 참 싫어하는 나. 친한 안과 원장 동생이 돋보기를 추천했다.

꽤 오래전부터 새치가 있었다. 아마 중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땐 양이 그리 많지 않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군대 전역 후, 사회 적응에 고민을 많이 해서인지 새치가 많아졌다. 한두 달에 한 번은 염색을 하며 머리카락 색깔을 유지해왔다. 염색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염색 직후엔 베개나 모자에 색이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염색약이 배어 못 쓰게 된 베개와 모자가 한두 개가 아니다. 두 달여 전, 헤어 커트해야 할 시기를 놓친 적이 있었다. 앞머리와 윗머리는 짙게 염색

된 머리카락이 겉을 덮고 있어 티가 안 났지만,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양옆 부분이 하얗게 되었다. 순간 전체적으로 골고루 뒤덮이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중년이 된 배우 리처드 기어를 보고 얼굴은 따라갈 수 없어도 헤어는 비슷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염색을 안 한 지 세 달이 되었다. 이제 내 머리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흰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어 회색빛이 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잘 어울린다고, 스타일리시하다고 말한다. 아내와 작가 몇 명을 제외하고.

TV나 유튜브 촬영을 할 때 대본 글씨가 작으면 조금만 키워달라고 미리 부탁한다. 책을 보거나 원고를 쓸 땐 돋보기를 이용한다. 내 가방 안엔 항상 돋보기가 들어있다.

원래하고 있던 수영에다가 자전거 타기를 조만간 추가할 생각이다. 그래도 축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내 인생 최고의 운동을 포기할 순 없다. 대신 경합 지역엔 가지 않고, 쉼 없이 너무 긴 시간 플레이는 하지 않을 것이며, 중거리 슛보다는 골대 앞에서의 가벼운 슛만 하련다.

앞으로도 내 몸은 조금씩 변할 것이다. 변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원망하면 나도 주변도 괴로워진다. 받아들이고 맞추면 잘 익어갈 것을 확신한다.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당신이 원하던 자산관리 그 이상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i-ONE 자산관리 바로가기

요즘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i-ONE 자산관리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내 차 팔기 서비스
모바일 쿠폰 마켓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커리어관리
정부 지원금 찾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473호(2022.05.11) 유효기간(2023.05.10)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품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